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평화와 번영을 위한 100년의 여망,
우리가 이어갑니다



대한민국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1919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945 8·15 광복

1960 4·19 혁명

1980 5·18 민주화운동

1987 6·10 민주항쟁

1998 IMF 외환위기 극복

2016 촛불 시민 혁명

2018 남북정상회담(판문점, 평양)

2019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03

MARCH 2019

INCHEON MONTHLY MAGAZINE
VOL.303

2년 연속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지

굿모닝인천



COVER STORY
진실을 향한 6,600km의 대장정
(인천국제공항 T2 미디어월 앞에서, 21세기 독립운동가 이호준)
표지 사진: 류창현



“내 피땀이 배어 있는,
저 축항”

“아침저녁 쇠사슬을 허리에 매고 축항 공사장으로 출역을 간다. 흙 지게를 등에 지고 10여 길 높은 사다리를 밟고 오르내린다. 불과 반 일 만에 어깨가 붓고 등창이 나고 발이 부어서 운신을 못하게 된다.”

백범 김구는 1910년 독립운동가 160명이 서간도에 무관학교를 설립하려고 자금을 모으다 검거된 ‘안악 사건’으로, 서울에서 옥살이를 하다 1914년 인천감리서로 이감된다. 이때 김구는 인천 내항 1부두인 축항 공사장에 끌려가 강제 노역에 시달린다. 그는 “힘들어서 바다에 떨어져 죽고 싶었으나, 그러면 같이 쇠사슬을 맨 죄수들도 함께 떨어지므로 할 수 없이 참고 또 참았다”라고 회고했다.

“저 축항에는 내 피와 땀이 배어 있다.” 김구는 광복 후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인천으로 달려갔다. 두 차례의 옥고와 고된 노역, 도망자의 삶. 하지만 낮은 데서 더 강해졌다. 청년 김창수가 민족 지사(志士) ‘백범 김구’로 다시 태어난 땅. 인천은 오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의미심장한 역사 지대’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손에 든 옛 사진은 백범 김구가 강제 노역을 했던 축항(현 인천 내항) 공사장의 모습이다. 일본 순사가 조선인 노동자들을 감시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뒤편으로 굴곡의 역사 속에서도 변함없는 월미산이 보인다. (사진 인천시 역사자료관)

CONTENTS



04 인천 미소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 외

05 미디어&스토리
‘극한직업’ 흥행에 대한 격한 공감 이유

06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 그 중심에 인천
인천 여성 독립운동가
강화 3·1 독립만세운동
인천 항일 독립운동

18 커버스토리-사람과 공간
③ 21세기 독립운동가 이호준

22 살고 싶은 도시
③ 호주 시드니

26 당신이 잠든 사이에
꽃 시장 24시

30 시네마 인천
영화 ‘극한직업’ 촬영 후기

32 내가 사랑하는 인천
남북, 비 온 뒤 하늘 같기를

34 문화 포커스
‘100년 후, 꿈꾸었던 세상’

36 시민 시장
독립유공자 후손

38 문화 캘린더
‘100년 후, 꿈꾸었던 세상’ 외

40 문화 행사
3·1운동 100주년 기념 문화 행사

42 仁포그래픽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44 이미지 뉴스
‘재정 역량 1위’

46 시정 뉴스
2022년까지 46곳에 공원 조성 외

50 의회 뉴스
주요 현안 사업 현장 방문 실시 외

52 드로잉 인천
인천 만세운동 발상지 창영초등학교

54 인포 박스
2019 시정 분야별 업무 토론 외

58 인천의 아침
3·1절 100주년, 다시 부르는 인천의 산하

59 인천사진관

인천미소

인천과 시민을 잇는 ‘미’디어
시민의 청원에 답하는 ‘소’통e가득
‘인천 미소’입니다.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항상 미소 짓습니다.

인천시 종합 매거진
<굿모닝인천>이 모바일에 쏙!

인터넷 주소창에
www.mgoodmorningincheon.co.kr
검색창에는 <굿모닝인천 모바일>을 입력하세요.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인터넷방송 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enews.incheon.go.kr

인천시 SNS

페이스북 www.facebook.com/incheon.gov
블로그 blog.incheon.kr
유튜브 www.youtube.com/user/icncityhall
트위터 twitter.com/incheon_gov
카카오스토리 story.kakao.com/ch/incheoncity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인천시 미디어’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incheon_gov
웨이보 www.weibo.com/incheon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 목소리’

노년층에 도움 되는 정보를 알려주세요

올해 2월호부터 <굿모닝인천>을 받아보고 있는 신규 독자입니다. 크고 작은 인천 지역 소식과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역사를 자세히 알 수 있어 흥미롭게 읽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실버 세대 구안·구직과 올바른 노후 준비 등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도 자주 실리면 좋겠습니다.

———— 이필섭 연수구 원인재로

관광 도시 인천으로의 여행

‘한국 관광 100선’에 차이나타운과 월미도, 소래포구 등이 선정됐다는 소식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뿌듯했습니다. 한편으로 인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았다는 생각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인천의 다양한 관광 명소에 대한 정보를 담아주세요. 올해에는 가족, 친척들과 함께 인천 여행을 더 많이 즐기고 싶습니다.

———— 김희경 부평구 원적로

소통하는 인천시를 응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곳곳하게 살아가는 이웃이 많습니다. 인천이 이러한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도시, 기쁨을 나누는 도시가 됐으면 합니다. 인천시가 앞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더 나은 방향을 찾는 도시가 되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합니다.

———— 김성철 서구 신석로

옛것과 자연을 소중히 지키는 도시

인천이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인천의 오래된 것들 그리고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가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도시 개발을 진행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할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옛것과 문화재, 자연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인천시가 되길 바랍니다.

———— 손정광 서구 새오개로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극한직업’ 흥행에 대한 적한 공감 이유

글 장훈 시 미디어담당관

영화 ‘극한직업’이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2월 17일 기준, 관객 수 1,453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다. 1위인 명량(1,761만 명)을 넘길 수 있느냐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이병헌 감독이 인천 출신이고, 영화를 찍은 장소가 ‘인천 배다리’라고 하니 더욱 관심이 가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도 가족과 함께 영화를 봤다.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웃다가 나왔다. 옆에 있는 가족이며, 극장 안 모든 이의 웃음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이 영화의 성공 포인트는 과연 웃음뿐이었을까?

모든 성공한 영화가 그러하듯이 ‘극한직업’에도 흥행 공식이 살아 있다. 우선 스토리이다. 스토리의 성공 요소는 내적 정합성과 시대적 맥락성에 부합하는가이다. 영화 속 이야기는 물 흐르듯이 흘러간다. 어린아이가 봐도 이해할 정도이다. 2시간 분량의 내적 정합성이 잘 짜여 있었다. 마약반과 강력반의 갈등이라든가, 왜 수원왕갈비통닭집이 되어야 하는지 등이 열거설기 잘 엮여 있다. 여기에 시대적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있다. 언제부터 KSSK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대한민국 엘리트 코스는 ‘경○고-S대학-S전자-교○치킨’이라는 시대적 블랙 유머이다. 영화는 이를 ‘리얼 유머’로 승화시킨 것이다. ‘대한민국 소상공인은 다 목숨 걸고 해!’라는 대사는 자영업 포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공감의 외침일지도 모른다.

다음으로는 배우들의 ‘극한 연기력’이다. 어찌 보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뽀하고 흔한 캐릭터들일 수 있다. 이런 캐릭터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연기력인 것이다. 능청스러움을 비롯해 다섯 주인공의 각자의 ‘케미’가 어우러져 웃기고도 멋진 마약반을 완성한 것이다. 배우 류승룡을 제외하면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배우들의 유쾌하고도 시원한 카운터펀치가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연출 능력이다. 결국 영화의 모든 요소는 감독에 의해 요리된다. 어떤 조미료를 더 넣느냐 덜 넣느냐에 따라 작품의 맛은 완전히 달라진다. 인천 출신 감독 이병헌은 앞서 ‘스물’ ‘바람 바람 바람’으로 그 재능을 선보인 바 있다. 이번에는 그냥 ‘웃긴 영화’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는데, 그의 말대로 ‘웃음’이라는 원재료에 충실한 영화로 성공을 거둔 셈이다. 설 연휴와 방학을 맞아 극장가에 경쟁작이 별로 없었다고 지적하는 이가 있지만 동의할 수 없다. 세상에 극장은 많고 그 스크린들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영화는 즐비하다. ‘극한직업’이 만약 흥행 경쟁작들의 개봉 시기를 피했다면 그것은 마케팅팀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끝으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영화 배경이 된 ‘인천 배다리’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천은 개항의 역사와 근현대사의 풍취를 가진 명소들이 많다. 국제도시로서의 세련됨도 갖추고 있다. 인천에서 촬영하는 영화가 점점 늘고 있는 이유이다. 앞으로 인천이 가진 장점들이 좋은 영화나 드라마, 문화 콘텐츠 속에서 오롯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본다.



뜨거웠던 100년, 더 희망찰 100년

大
韓
獨
立
萬
歲

1919년 3월 1일, 암흑 속에서 숨죽여 살던 여느 때와 다른 날이었다. 오후 2시, 서울 탑동공원(현 탑골공원) 하늘 위로 갑자기 피맺힌 함성이 울려 퍼졌다. “대한 독립 만세!” 태극기를 흔들며 거리로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태극기의 물결은 순식간에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 나갔다.

인천에는 3월 6일 인천공립보통학교(현 창영초등학교)에서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는 불씨가 피어올랐다. 학생들은 3·1운동 소식을 듣고 동맹 휴학을 결정하고, 거리로 나와 시민들에게 독립선언서를 나눠줬다. 나라 위하는 마음이 불꽃처럼 활활 타올라 인천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3월 8일 곳곳에 독립선언서가 뿌려지고 만세 소리가 굽이쳤다. 만국공원(현 자유공원), 황어장터(현 계양구 장기동), 강화도, 월미도, 덕적도 등 인천 곳곳에 애국의 불길이 솟아올랐다. 황어장터 만세운동에는 600여 명의 군중이 일어섰다. 일본 경찰이 그들 심장에 총칼을 겨누었다. 거리를 가득 채우던 만세 소리는 순간 비명과 울부짖음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강화도에서는 무려 2만여 명에 이르는 군중이 거대한 물결을 이뤘다. 그들은 민족의 자존심이고 희망이었다.

4월 2일 만국공원에서 열린 ‘13도 대표자 회의’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씨앗을 뿌리며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한 획을 긋는다. 전국 13도의 독립운동가들은 이 자리에서 ‘한성 임시정부’를 세우기로 뜻을 모았다. 그리고 4월 11일, 이를 근간으로 역사적인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 선포됐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 중)

100년 전 뜨거웠던 그날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다. 100년 전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토록 꿈꾸었던 오늘. 고귀한 피와 땀이 스민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한다. 더 뜨겁게 더 희망차게, 앞으로 함께할 100년은 우리의 몫이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가운데 여성은 없다. 하지만 1919년 뜨거웠던 그날, 여염집 아낙, 기생, 학생 할 것 없이 수많은 여성이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반면 지난해 11월 17일 기준,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1만5,180명 중 여성은 전체의 2.3%인 357명에 불과했다. 태극기 뒤에서 헌신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소리 없이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졌다. 세상은 독립운동하는 남편과 아들 뒷바라지하는 것을, 여자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여겼다. 주체적으로 독립운동가의 길을 걷는 여성마저 제 이름이 아닌 누군가의 어머니, 아내, 딸로 불렸다. 이 땅의 수많은 여성이 긴 세월 일제에 대항하면서 남성 중심적인 사회와도 맞서 싸워야 했다.

지금껏 대한민국 여성 독립운동사에 대한 기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1990년대에 들어서야 서서히 연구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역사의 기록 속에 글 한 줄 사진 한 장조차 찾아보기 힘든 독립운동가가 많다. 다행히 최근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을 기리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그동안 소외됐던 여성과 의병 독립운동가 1,900여 명을 발굴했고, 이에 국민 73.5%가 ‘잘한다’라고 평가했다. 그중 여성 독립운동가는 202명이고, 26명에게는 서훈과 포상이 결정됐다.

◦
어머니의 이름으로
곽낙원(1859~1939)
애국장

사진 백범기념관

“우리가 독립운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독립운동이다.” 민족의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이 한 말이다. 그의 뒤에는 어머니 곽낙원 여사가 있었다. 아들을 위해 눈물 흘리는 대신 용기를 준 강한 어머니였다. 김구는 1896년 3월 9일 황해도 치하포에서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인 스킨다(土田讓亮)를 죽이고 해주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다, 1896년 8월 인천감리서로 옮겨져 사형선고를 받는다. 곽낙원 여사는 인천 감리서로 이감된 아들을 따라 인천으로 와 옥바라지를 한다. 나라를 위해 몸 던진 자식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으리라. 하지만 그녀는 감옥에 갇힌 아들을 보며 “경기 감사가 된 것보다 더 자랑스럽다”라며 용기를 북돋웠다. 그리고 옥문 앞 객주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며 기꺼이 아들의 뒷바라지를 했다. 이후 1925년 황해도 안악에서 생활비를 절약해 모은 돈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1934년 상하이로 건너가 임시 정부 요원들을 도우며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

◦
붉은 피가 스민 땅에서
김유의(1869~1947)·**조인애**(1891~1929)
대통령표창

사진 김유의 여사 강화중앙교회

100년 전, 인천의 여성들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다. 나라 지킨 선열들의 붉은 피가 스민 땅. 조선시대부터 바닷길로 쳐들어온 외세에 맞서 싸운 강화도의 기상은 일제강점기로 이어진다. 3월 12일, 강화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은 동맹 휴학을 한 다음 날 독립운동을 했다. 이때 강화공립보통학교 여자부 학생들도 나서서 만세를 불렀는데, 주동자 2명이 일본 경찰에 끌려가 갇은 고초를 겪었다. 3월 18일에는 강화읍 장터에서 유봉진을 선두로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음 날 42명이 붙잡혀 혹독한 고문을 당한 끝에야 겨우 풀려났는데, 그중에 유봉진의 아내 조인애와 선두교회의 전도부인 김유의가 있었다. 그들은 태극기의 물결 속에서 군중을 격려하며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김유의는 시위 전 14일 교회에서 인쇄한 ‘독립선언서’ ‘국민회보’ ‘독립운동’ ‘독립가’를 받아 조선인들에게 배포하며 애국심을 끓게 했다. 두 사람 모두 나라를 구하는데 앞장선 ‘죄’로 6월형의 옥고를 치렀다.

◦
개성을 움직인 강화의 딸
권애라(1897~1973)
애국장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성의 3·1운동은 여성을 중심으로 움직인 대표적인 독립운동이다. 그 중심에 인천의 딸이 있었다. 1897년 강화도 교동에서 태어난 권애라는 네 살 때 개성으로 이주, 호수돈여학교 부설 유치원 교사로 일하던 중 3·1운동을 맞는다. “부인은 관계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는 호수돈여학교 서기 신공량의 말을 뒤로하고, 여성들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개성 일대에 전한다. 그 힘으로 3월 3일 개성에서 첫 만세운동의 불길 이 치솟았다. 이 일로 권애라는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천안 시위를 주도한 유관순, 수원 기생 시위를 이끈 김향화 등 여성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옥고를 치른다. 출옥 후에는 ‘반도의 희망’ ‘잘 살읍시다’ 등의 연설로 여성들을 깨우치고, 1922년 1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인민대표회의에 한민족 여성 대표로 참가해 독립을 위해 힘쓴다. 여기서 그는 영화 ‘밀정’의 소재가 된 경부 황옥 폭탄 사건, 이른바 의열단 사건의 핵심 인물 김시현을 만나 결혼한다. 그는 아내를 ‘권 동지’라고 부르며 신뢰했다.

◦
“조선의 등불이 되어라”
김란사(1872~1919)
애족장

사진 이화여자대학교 역사관

“조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다오.” 김란사는 유관순 여사를 독립운동의 길로 이끈 스승이다. 그는 인천 바다를 통해 들어온 새로운 사상과 도전정신을 끌어안은 진취적인 여성이었다. 1872년 평양에서 태어나 훗날 한양(경성)에 살며 1893년 하상기와 결혼한다. 이후 남편이 1899년 인천별감(시장)으로 부임하면서 인천에서의 삶을 시작한다. 앞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그는, 1894년 이화학당을 찾아간다. 처음엔 기혼 여성이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절당하지만, 한밤중에 등불을 들고 룰루 프레이(Lulu E. Frey) 당장(교장)

을 찾아가 “우리나라는 한밤중처럼 어둡다. 등불처럼 밝은 길을 열어 달라”며 마음을 움직였다. 이후 1895년부터 일본과 미국에서 유학하고 1906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문학사로 귀국, 이화학당 교사로 재직하며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이 땅의 여성에게 바쳤다. 영어 실력과 외교력을 갖춘 김란사는 나라 안팎에서 독립운동가들과 접촉해 늘 일제의 감시를 받았다. 1918년부터 조선의 독립을 인정받기 위해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을 시도했으나 1919년 1월 고종의 승하로 좌절되기도 했다. 이후 3·1운동 직후인 4월 10일, 독립지사들을 만나기 위해 베이징(北京) 만찬회에 참석했다 의문의 죽음을 맞는다. 장례에 참석한 선교사 베커는 “시신이 검게 변해 있었다”라며 타살로 추측된다고 증언했다. 그의 나이, 47세였다.

◦
당당한 대한민국 정부를 꿈꾸며
최선화(1911~2003)
애국장

사진 우리나라 출판사

1919년 3월 솟구친 뜨거운 함성은, 4월 11일 중국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 이후 임시 정부는 1945년 8·15 광복까지 중국 각지로 청사를 옮기며 독립운동을 했다. 1937년 12월, 중국 창사(長沙)에서 독립운동가 양우조, 최선화 부부의 만딸 제시가 태어났다. 1937년 백범 김구 선생의 주례로 결혼한 부부는 임시 정부 내에서도 손꼽히는 지식인이었다. 아내 최선화는 인천 출신으로 이화여전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모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1936년 상하이로 건너갔다. 그는 1940년 한국독립당에 가담해 임시 정부를 지원하고, 같은 해 6월 동포 여성들과 함께 한국혁명 여성동맹을 결성했다. 이 단체는 임시 정부의 활동을 지원하고 아이들의 교육에 힘썼다. 1943년 2월에는 임시 정부를 따라 충칭(重慶)으로 가 1919년 3·1운동 직후 조직된 애국부인회의 재건에 힘쓰며 항일의식을 불태웠다. 그는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38년 7월부터 1946년 4월까지 육아 일기를 썼다. 당시 임시 정부 독립운동가들의 생활상과 나라를 향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이 일기는, 훗날 부부의 외손녀 김현주에 의해 책 <제시이야기>로 세상의 빛을 본다.

강화도,
그날의 뜨거운 함성

유난히 봄 햇살이 따스했던 1919년 3월 18일, 강화읍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날이었다. 여느 때처럼 사람들로 북적이던 장터는 오후 2시가 되자 순식간에 우렁찬 만세 소리로 뒤덮였다. 1만5,000여 명이 모인 강화읍 장터에서 울려 퍼진 “대한 독립 만세”. 강화도의 만세운동은 지방 단위로는 경남 진주와 더불어 큰 규모의 만세운동으로 기록됐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도움 이은용 강화 3·1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01 용흥궁 공원 안에는 강화 3·1 독립만세 기념비와 유봉진 선생을 비롯한 시민들의 조형물이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 불씨

3월 18일 강화도에서 대대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전, 강화공립 보통학교에서는 3월 12일과 13일 학생들이 주도하는 만세운동이 있었다. 교사의 만류와 경찰의 진압으로 교내 시위로 끝난 아쉬운 만세운동이었지만, 이 사건은 강화 지역 만세운동을 촉발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어린 학생들도 만세를 불렀는데 어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만세운동은 감리교계 인사들과 학생층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3월 1일 탑동공원(현 탑골공원) 만세운동과 3월 5일 남대문 밖 학생 연합 시위에 참가했던 연희전문학교 황도문은 휴교령이 내리자 ‘독립선언서’와 ‘국민회보’ 등의 유인물을 몰래 숨겨 강화도로 귀향했다.

황도문이 가지고 온 유인물을 본 유봉진은 만세운동을 결심한다. 은세공업자인 유봉진은 원래 대한제국 강화진위대 출신 군인이었다. 당시 군 지휘자는 후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동휘였다. 1907년 7월 일제는 고종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하는 조치를 취했다. 당시 스물한 살의 청년 유봉진은 이른바 ‘정미(丁未)의병’이란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된 사건에 참여하게 된다. 유봉진은 정미의병 활약 후 일제 군경의 감시망을 피해 감리교회 권사 신분으로 지낸다. 하지만 황도문과의 만남은 그의 가슴 속에 묻어놓은 항일의 불씨를 되살린다.

02 강화진위대 출신의 유봉진 선생은 1907년 ‘정미의병’에서 항일투쟁을 벌였으며, 1919년 3월 강화도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03 1905년 강화진위대 장교들의 기념사진(앞줄 가운데가 이동휘)



‘결사대장’ 유봉진을 선봉으로 펼쳐진
대규모 평화 시위

유봉진은 먼저 길상면의 감리교도들을 중심으로 ‘결사대’를 조직했다. 1919년 3월 9일 길직교회에서 길직리의 조종환, 장명순, 장동원, 장상용, 장삼수, 장흥환 등과 선두리의 황유부, 황도문, 염성오, 유희철, 온수리의 유봉진, 상방리의 이진형 목사 등이 회합했고, 유봉진은 결사대장을 맡았다. 유봉진은 강화도 각지를 돌아다니며 시위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그는 속옥 상의에 ‘유봉진 독립결사대’라고 쓴 글씨를 펼쳐 보이며 함께할 동지들을 모았다. 3월 18일 강화읍 장날, 만세운동을 계획한 바로 그날이 왔다. 따스한 봄볕이 부드럽게 내리던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다. 북적거리는 사람들 틈에서 결사대원들은 때를 기다렸다. 드디어 오후 2시. 강화읍 옷장터와 아랫장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만세운동이 시작됐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모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다. 품속에 꼭꼭 숨겨왔던 태극기를 흔들며 감격에 겨워 만세와 함께 울음도 터져 나왔다. 만세운동 선봉에서 유봉진이 백마를 타고 시위대를 이끌었다. 1만5,000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지만, 유봉진의 지휘 아래 일사분란하게 시위가 진행되었다. 만세 행진은 군청과 객사, 향교, 경찰서까지 이어졌으며 인파는 점점 늘어나 경찰서 앞에서는 2만여 명에 이르렀다. 시위대의 성취감은 한층 고조되었다. 실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민족적 자존심과 자부심이었다.

‘봉화 시위’로 이어진
강화도 만세운동

대규모 시위 소식을 접한 일제는 3월 19일 인천수비대 경찰 10여 명과 용산 주둔군 40명을 강화도에 급파했다. 강화도 전역에서 시위자 검거와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다. 읍내에서 시작된 시위는 일제의 강력한 탄압에도 관내 전역으로 파급됐다. 온수리를 중심으로 강화 지역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크고 작은 만세운동이 이어졌고, 23일에는 시위가 교동도 전역으로 확산됐다. 특히 4월 1일 하점면 봉천산 봉천대 햇불 만세 시위를 시작으로 강화도 13개 읍면 전 지역에서 봉화 시위가 진행



04 강화도 만세운동을 모의했던 길직교회
(출처 1969년 기독교대한감리회 사진 연감)

05 황유부, 염성오 등이 강화 만세운동에 쓰일 독립 선언서를 등사·인쇄했던 선두교회에는 만세운동 기념비가 있다.



05

잠두교회(현 강화중앙교회)는 죽산 조봉암과 이동휘가 다닌 교회로, 1907년 일본군의 강화 기독교인 탄압에 저항하고 1919년 3월 18일 청년 교인 7명이 독립운동 유인물을 인쇄·배포한 곳이다.



06 1910년대 잠두교회
07 1914년의 잠두교회

08 현 강화중앙교회의 전경



08

됐다. 봉화 시위는 경찰이 미처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다. 주민들은 밤에 산에 올라 햇불을 밝히고 마음껏 만세를 부르고 자진 해산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시위’를 벌였다. 봉화대 불길이 산을 따라 전파되듯 강화도 곳곳에서는 한동안 야간 봉화 시위가 이어졌다. 끊어질듯 이어지는 강화 만세운동은 고대 역사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강화의 끈질긴 저항 의지를 보여주는 항일 민족투쟁이었다.

이은용 강화 3·1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끈질긴 강화도 만세운동의 저력을 이렇게 설명한다. “강화도는 병인양요, 신미양요, 강화도 조약 등을 겪으면서 외세 침략에 맞서는 저항 의식이 남달랐던 지역입니다. 의병운동과 3·1운동이 한 축으로 연결돼 줄기차게 항일투쟁을 한 것도 이 같은 역사적 배경 때문일 것입니다.” 강화장터에서의 만세운동으로 군민 98명이 일제에 체포됐으며, 43명이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오히려 드높은 한민족의 자유와 독립의식을 세계에 알리고 민족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강화 만세운동의 특징]

- ▣ 강화장터 만세운동은 지방 단위로는 가장 큰 규모의 ‘평화 시위’
- ▣ 3월 말 섬 지역까지 산발적인 만세운동 전개
- ▣ 4월 1일부터 야간 시간을 이용한 봉화 및 햇불 시위 시작

1919年

‘내 나라, 에서 외쳐야 했던
대한 독립 만세 !!’



仁川

전국 각지에서 독립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던 1919년 인천은 일본 땅이나 다를 바 없었다. 당시 인천 인구 중 절반이 일본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천에서의 만세운동은 그 어느 지역에서 벌어졌던 시위보다 일본인들에게 충격이었다. 인천에서는 3월부터 격렬한 만세 시위가 시작됐다.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씩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기록에 남아 있는 인천에서의 대표적인 만세 시위를 정리했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3월 6일

인천공립보통학교(현 창영초교) 동맹 휴학, 만세운동

서울의 3·1운동 소식을 전해 들은 인천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은 3월 6일 동맹 휴학을 단행하고 만세운동을 펼쳤다. 3월 8일 학생들은 학교와 일제의 연락을 차단할 목적으로 학교 전화선을 절단하고 전화기를 부수며 격렬하게 항거했다.

3월 8일

인천 시내 독립선언서 다수 배포

시내 전역에 독립선언서가 뿌려지고 곳곳에 격문이 붙기 시작했다.

3월 9일

만국공원(현 자유공원) 만세운동 전개

오후 5시 30분경 기독교인 및 청년 학생 등 300여 명이 만국공원에 모여 만세를 부르다 일본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오후 8시 30분경, 50여 명의 시위 군중이 어둠을 뚫고 경인가도 부근에서 만세를 부르다 경찰과 충돌했다.

3월 12일~13일

강화공립보통학교 만세운동

학생들이 칠판에 태극기를 그려놓고 교내에서 만세 부르다 교직원들에게 저지당하고, 주동자들은 경찰에 연행됐다.

3월 13일

소래면 주민들이 소래산에서 만세운동

3월 18일

강화읍 장터 만세운동, 2만여 명 참가

오후 2시, 강화읍 웃장터와 아랫장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조직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인천 만세운동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월 19일~

강화 전 지역으로 만세운동 확산

온수리 천도교인 시위를 시작으로 불은면,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 하점면 등 강화 전 지역으로 만세운동이 확산됐다.

3월 21일~24일

교동도 만세운동

3월 21일 교동도 주재소 앞에서 주민 80여 명으로 시작한 시위는 3월 22일 100여 명으로 늘었으며, 3월 23일 서한리와 동산리 주민 100여 명이 교동읍에서 시위를 펼쳤다. 3월 24일에도 100여 명이 모여 면사무소와 향교, 옛 관아 건물을 돌며 만세를 불렀다.

3월 24일

황어장터에서 600여 명이 만세운동

오후 2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날을 이용해 부평시장과 계양면 장기리 황어장터에서 만세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청년들은 면사무소를 습격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경찰이 총칼을 휘둘러 5,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600여 명이 모여 항거했던 황어장터에서는 이은선이 일제의 칼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3월 27일

문학동 만세운동

3월 28일

영종도(용유면) 만세운동

3월 23일 조명원, 조정서 등 11명이 ‘혈성단’이라는 비밀 항일 투쟁 단체를 결성하고 만세 격문을 배포한 데 이어 28일 관청리 광장에서 150여 명이 목이 터져라 대한 독립 만세를 불렀다.

3월 30일

인천 내리 상가 철시 운동

인천 지역의 한국인 상점들은 가게 문을 모두 닫음으로써 만세운동에 뜻을 같이했고, 화평동과 복성동 일대에서 천도교인 수백 명이 만세 시위에 동참했다.

3월 31일

서창리(현 남동구 서창동) 주민 만세 모의

4월 1일

월미도 만세운동

4월 1일

강화도 봉화 시위 시작

4월 2일

인천 만국공원 13도 대표자 회의 소집

만국공원에서 이규갑, 홍면희, 안상덕 등 13도 대표들은 이날 독립운동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임시 정부 수립을 결의했다. 이 임시 정부가 상하이(上海) 및 노령(露嶺) 대한국민의회와 더불어 3대 임시 정부 중 하나로 임시 정부 정통성의 근간이 된 ‘한성임시정부’다.

4월 9일

덕적도 만세운동

사립 명덕학교 교사였던 임용우가 덕적면 동리와 진리 주민을 모아 덕적면 진리에서 독립 만세를 외치다 일본 경찰에게 체포됐다.



진실을 향한, 6,600km의 대장정

공간은 곧 사람을 의미한다. 숨 쉬고 머무는 자리마다 살아온 시간과 삶을 대하는 태도, 생각이 스며든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공간에 들어가, 그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인천을 본다. 그 세 번째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 미국 대륙을 자전거로 횡단한 인천대학교 이호준(24) 학생을 만났다. 그의 공간은 오직 자전거뿐. 달리는 내내 좁은 안장 위를 벗어날 수 없지만, 두 바퀴는 진실을 향해 끝없이 나아간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3A 프로젝트



100년 후 오늘, ‘자전거 왕’

1920년대 ‘하늘에는 안창남, 땅에는 엄복동’이라는 말이 있었다. 조선인 최초의 비행사 안창남은 하늘을 날고, 자전거 선수 엄복동은 땅을 누볐다. 엄복동은 ‘자전거 왕’이라 불리며,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20여 년 동안 전국 대회를 휩쓸었다. 특히 일본 선수들에 맞서 싸워 이기며, 조선인들의 자존심을 높이고 나라 잃은 설움을 달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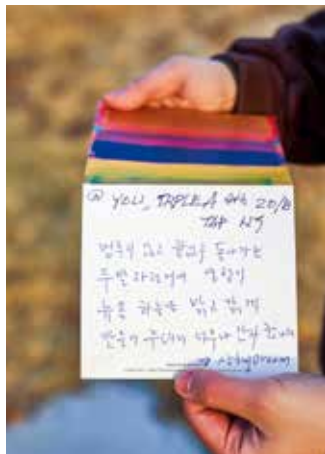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100주년을 맞은 오늘, 이 시대의 새로운 ‘자전거 왕’을 만났다. 인천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는 이호준(24) 학생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 미국 대륙을 자전거로 횡단했다. 어두웠던 시절의 영웅처럼, 그 역시 자신만의 방법으로 21세기 독립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가 참여하는 프로젝트의 이름은 ‘트리플 A’.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과거 잘못을 ‘Admit(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심 어린 ‘Apologize(사과)’를 하며, 할머니들과 ‘Accompany(동행)’하겠다는 뜻을 품고 있다. 그는 트리플 A 프로젝트 4기로, 지난해 여름 미국 서부에서 동부 끝까지 80일간을 쉬지 않고 달렸다. LA에서 시작해 시카고,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그리고 뉴욕까지, 주행 거리 총 6,600km.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집회를 열고 사람들과 일일이 만나, 바로잡아야 할 뼈아픈 역사를 알렸다.



미국 횡단 중 잠시 두 바퀴를 멈추고. 그의 공간은 오직 자전거뿐. 달리는 내내 좁은 안장 위를 벗어날 수 없었다.





미국 서부에서 동부까지 총 6,600km.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한
80일간의 대장정.

“뉴욕 하늘을 밝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의 응원이
힘과 용기를 준다.



빛속에서 외치는 진실

그는 평소 위안부 문제가 역사와 정치적 상황을 떠나 상식선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왔다. 피해자들이 역사의 증인으로 버젓이 살아 있는데, 일본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답은 명확하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힘을 보태고 싶었다. 그렇게 미국 대륙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자전거에 올라탔다.

“나는 여성 인권운동가다. 함께 싸워줘서 고맙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1) 할머니를 만났을 때 건네 들은 첫마디와 주름진 얼굴에 서린 결연한 의지를 잊지 못한다. 끝내 진실 어린 사과를 받지 못하고 저세상으로 간, 김복동 할머니의 눈빛도 기억에 선명하다. 암 수술을 받은 지 닷새 만에 빛속에서 홀로 시위를 하던 강인한 분이셨다. 이 시대의 용기 있는 어른들이다. 가혹한 역사의 피해자이면서도 같은 상처를 부여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세상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할머니들은 작은 체구임에도 거대한 산 같은 존재입니다.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도, 잘 못된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신념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안타까운 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 그가 프로젝트를 시작한 4년 전만 해도 공식적으로 알려진 위안부 할머니는 50분이었는데, 이제 23분만 남았다.

1940년 당시 열네 살이던 소녀 김복동은 일본군에게 속아 위안부로 끌려갔다. 이후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으로 끌려 다니며 고통받다, 1945년 8월 15일 나라를 되찾고 나서야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피맺힌 설움과 눈물을 떠안고 살다, 올해 93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사과는 듣지 못한 채로.



미래를 향해, 힘차게 페달을 밟다

섭씨 40도, 날카롭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 숨이 턱턱 막혔다. 돌아갈 곳은 없다. 폭염에 달구어진 고속도로를 끝없이 달려야만 했다. 도로 옆으로 대형 트레일러가 지나갈 때면 생명의 위협마저 느꼈다. 할머니들을 떠올리지 않았더라면, 고된 여정의 끝에 이르기 어려웠으리라. 정신력으로 육체의 고통을 견뎌냈다.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도 힘과 용기를 주었다. 시카고에 이르러서는 한 고등학교의 미국인 교사가 함께 달리기를 자처했다. 국경과 나이를 뛰어넘은 사람들의 진심이 모여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희망을 확인했다.

“자전거를 타고 먼 길을 달린다고 해서 지금 당장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자동차를 두고 굳이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타는 건, 최선을 다해 진실에 다가서겠다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올여름, 대한민국의 젊은이 셋이 역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다시 떠나면 길을 나선다. 100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오늘. 하지만 풀지 못한 숙제가 아직 남아 있다. 더 새로운 대한민국의 100년을 향해 힘차게 페달을 밟는 그들은, 곧 우리의 미래다.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자동차를 두고 굳이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타는 건, 최선을 다해 진실에 다가서겠다는
그들의 의지다.



LA에서 시작해 시카고,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뉴욕까지.
미국 대륙을 횡단하며 바로잡아야 할 역사를 알렸다.



처음 ‘3A 프로젝트’를 시작한 백덕열(27-왼쪽) 학생과 함께.
세계를 향해 역사의 진실을 전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SERIES 3.

AUSTRALIA SYDNEY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주도이자 최대 도시 | 면적 1만2,367km² | 인구 약 513만 명

인천이 묻고, 세계가 답하다 ——
세계가 인정한 ‘살고 싶은’ 도시 탐방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위대한 유산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 의식

우리 시 민선 7기 시정 슬로건은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다. 거창한 구호 대신 소박하지만 핵심이 담긴 메시지다. 시민 참여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 살고 싶은 도시의 기준은 무엇일까? 그 해답을 해외 선진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그 세 번째는 영국의 정치·경제 분석 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선정한 ‘2018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TOP 10’에 이름을 올린 호주 시드니(Sydney)다.

글 신아연 소설가칼럼니스트 | 사진 셔터스톡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간 사람은 없는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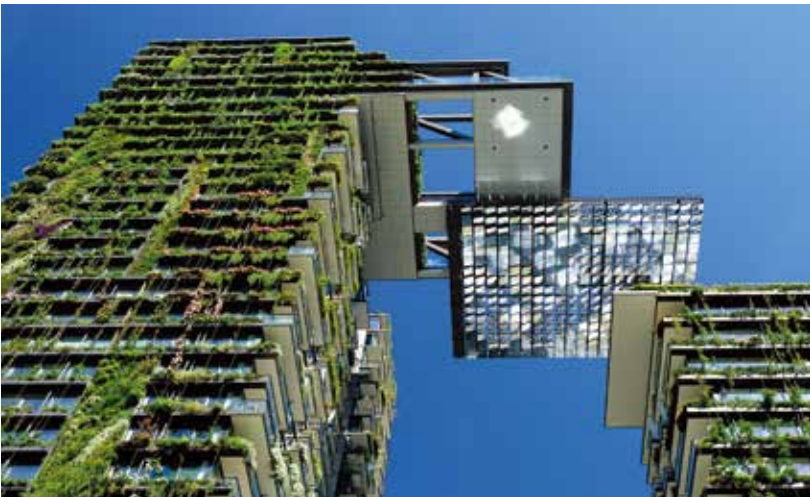
시드니의 랜드마크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The Sydney Opera House)와 하이드 파크(Hyde Park)의 풍경

관광객들 사이에는 ‘시드니(Sydney)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방문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다. 두 번, 세 번을 가도 매력적인 도시 시드니. 그렇게 몇 차례 여행으로 갔다가 아예 눌러 살게 되었다는 사람도 심심찮게 만나는 곳. 광활한 ‘섬 대륙’ 전체가 온전히 거대 관광 자본이다.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주도인 시드니의 상주인구는 약 500만 명. 놀라운 것은 그와 맞먹는 숫자의 해외 관광객이 시드니를 방문한다는 사실이다. 나폴리(Napoli),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와 함께 세계 3대 미항이라 불리는 도시.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리지로 상징되는 시드니의 그 무엇이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도시의 매력으로 작용하는 걸까. 기억을 들추고 느낌을 되살리기 위해 2000년에 출간된 나의 호주 생활 에세이 <심심한 천국 재밌는 지옥>을 펼쳤다.

창문을 쏴아대는 새소리에 잠이 깨고 지천으로 피어나는 꽃향기에 혼곤히 취하는 나라, 아이들은 지치지도 않고 초록 잔디밭과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그림을 그리며, 공원 한편에는 책을 읽다 소르르 잠이 든 젊은이의 모습이, 잘 갖춰진 소품처럼 평화로운 곳,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귀가한 가정은 아내의 저녁 준비를 거들거나 정원을 손질하고, 주말이면 가족 피크닉으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타롱가 동물원(Taronga Zoo)에서 바라본 시드니 스카이라인과 사우스 헤드(South Head) 앞바다에 있는 흑등고래



센트럴 파크(Central Park) 구역에 있는 세로 정원과 도시 풍경

천혜의 자연을 물려받은
청정 도시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우리로서는 시드니의 맑은 공기가 전보다 더 부각될 뿐이다. 나는 10년 이상을 호주 시드니에서 살았다. 사는 내 내 살인적 집값과 높은 물가에 시달렸지만, 나 역시도 쾌적한 기후를 비롯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청정 도시 시드니의 이미지를 흠집 내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다. “이 나라 사람들은 무슨 복이 이리 많아서…” 시드니를 찾는 한국 여행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다. 복불복이라더니 조상 덕에 우연히 좋은 땅덩어리를 차지했다는 부러움 섞인 찬탄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도시의 질과 아름다움이 단순히 타고난 것으로만 유지될까? 살기 좋은 세계 10대 도시를 태생적 자연 조건을 기준으로 선정한다면 불공평을 넘어 별 의미가 없지 않나. 호주인들은 타고난 도시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지켜 나가기 위해 의지적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인다. 성숙한 시민 의식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본다이(Bondi) 해변

싱그러운 녹음과
말끔하게 정돈된 도시 경관

그중 하나로 도심의 녹지대를 들 수 있다. 도시 어느 곳이나 빌딩과 집 등 건축물 사이사이마다 나무와 숲이 어우러져 시가 전체가 초록빛을 띤다. 도심 어디를 가나 무성한 나무숲이요 푸른 녹지대, 드넓은 잔디 공원인 이유가 땅덩이가 워낙 넓다 보니 구태여 거기까지 집을 지을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다. 싹 밀어버리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거나 기업들의 거대 자본으로 초대형 건물과 쇼핑센터 등을 마구잡이로 세워 돈을 벌자는 겁 없는 발상을 여간해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시드니 어디를 가도 우리에게서 너무나 익숙한 얼룩덜룩, 들쭉날쭉, 가로세로로 어지러이 얹혀 있는 대문짝만 한 원색의 간판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간판에 관한 한 엄격하고도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파트 문짝 크기의 상호를 건다면 호주는 겨우 A4 용지 한 장 크기의 널빤지를 내다 거는 수준이다. 길에 세우는 입간판 허용도 매우 까다로워 몇몇 경우에만 가능하며, 우리 식의 풍선 광고는 꿈조차 꿀 수 없다. 또한 거리 곳곳이나 진입로에 진을 치고 있는 장사치들, 상점 앞에 산더미처럼 진열된 물건 등 ‘전 국토의 시장화’를 방불케 하는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으로 도시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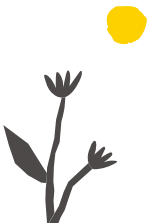
아름다운 서해와 168개의 섬을 품은 인천 역시 시드니와 같이 천혜의 자연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이를 제대로 누리고 도시의 경쟁력으로 발현하기 위해서는 인천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인천시 또한 섬 관광 활성화 사업과 그린 에코 시티 조성 사업, 도시 경관 개선 사업 등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도시를 품위 있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면, 시드니 못지않은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리라 기대한다.



낮보다
화
려
한
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드는 일상이 아닌,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에 오히려 더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이 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우아할 것 같지만, 누구보다도 치열한 밤을 보내는 곳. 바로 꽃 도매상가이다. 집으로 가는 자동차 불빛마저 찾아드는 늦은 저녁 시간. 꽃 도매상가는 이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바빠진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PM 10:00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더 바빠지는 사람들

“우아하다고요? 엄청 막일인데... 꼬박 밤을 새우는 일인데 괜찮겠어요?” 꽃 가게의 일상을 취재한다는 말에 구월동에 위치한 ‘은성꽃도매상가’ 김서원(55) 사장은 고개부터 저었다. 모두가 일상을 마무리하는 시간인 밤 10시, 센트럴시티터미널 호남선으로 불리는 꽃 도매 시장에 도착했다. 한적한 도로와는 달리, 꽃도매 시장은 오히려 활기가 넘쳤다. “여기는 제철을 맞아 싱싱한 꽃부터 흔히 볼 수 없는 수입 꽃까지 종류가 수만 가지에 이르죠. 요즘엔 꽃 트렌드도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직접 와서 확인해 봐야 해요.” 졸업, 밸런타인데이가 있는 2월은 대목 중 대목. 전국 각지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점포가 양갈래로 빼곡히 들어서 있고, 좁은 통로는 오로지 꽃을 구입하기 위한

사람들로 넘쳐난다. 환한 불빛 아래 알록달록 화려한 꽃들은 손님들의 눈높이에 맞춘 선반 위에 가지런히 누워 있거나 바구니에 꽂혀 있다. 누운 꽃은 오늘 들어온 것이고, 바구니에 꽂힌 꽃은 어제 들어온 것이란다. 바구니에는 물을 담아 꽃을 생기 있는 상태로 유지한다. 김서원 사장은 구입할 목록을 적은 수첩을 들고 꽃의 상태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수많은 점포 사이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쫄리(솔리다스터)가 없네요?” “그건 다 나갔어요.”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다른 가게로 향한다. “여긴 시간이 돈이에요. 한 바퀴 돌 때마다 팔려나가는 꽃도 많고, 가격도 달라지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 꽃을 구입하긴 하는데, 구입한 꽃을 건네받지 않고 그저 메모지에 기록만 한다. “워낙 구매량이 많다 보니 꽃 목록과 구입한 가게 이름만 알려주면 한꺼번에 챙겨서 저희 매장까지 배달해 줘요. 요즘엔 졸업 시즌이라 구입하는 물량이 평소보다 훨씬 많아요.”



꽃 목록과 구입한 가게 이름을 꼼꼼하게 메모하는 김서원 사장



PM 11:40

꽃에 파묻혀 순식간에 지나간 시간

어느덧 밤 11시 35분. 이번에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으로 가야 한다. 11시 40분이 되면 그곳에서 생화 시장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미 터미널로 줄줄이 들어오는 탑차에는 오픈 시간에 맞춰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꽃들로 가득했다. 호남선 꽃 도매 시장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경부선 3층 꽃 도매 시장은 규모가 크고, 꽃의 종류도 훨씬 많았다. 조화, 부자재 코너로 나뉘어 있고, 길이 굉장히 꼬불꼬불해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길을 잃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화려한 꽃들을 맘껏 감상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은 어느새 까마득히 잊고 치열하게 꽃을 구입하려는 사람들과 팔려는 사람들 사이를 요리저리 빠져나가기에 급급했다. 소규모 꽃 가게 상인과 개인적으로 꽃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구입한 꽃을 신문지로 둘둘 말아 끌어안고 비좁은 통로를 분주하게 돌아다녔다. 가뜩이나 좁은 통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꽃을 포장했던 신문지와 박스들로 넘쳐나 지나다니기가 더 불편해졌다. 몇 번을 들어도 생소한 꽃의 이름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어렵지만

하고, 미로 같은 점포 사이를 뱅글뱅글 돌며 꽃을 구입하느라 서서히 허리와 다리가 아파왔다. 하지만 좁은 통로, 바쁘게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 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계속 돌아다니면서 꽃을 구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전 3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 드디어 새벽 꽃 구매가 모두 끝났다. 지난 저녁에 출발했던 구월동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3시 30분. 그런데 6시부터는 매장에 도착하는 꽃을 진열하고 정리해야 한다. 김서원 사장은 집에 들어가 잠깐 쉬고 6시에 다시 매장 문을 열었다.

AM 06:00

의미 있는 순간을 빛나게 해주는 일

오전 6시. 매장 앞에는 밤새 구입한 꽃을 실은 트럭이 이미 도착해 있고, 매장 안에서는 남자 직원들이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트럭에서 내려지는 박스를 어깨에 둘러메고 매장 안으로 빠르게 옮기기 시작한다. 무안, 칠곡, 봉화, 여수, 완주, 공주, 태안 등 전국

각지의 꽃 상자들이 순식간에 매장 안을 가득 메웠다. “무거운 건 꽃 1박스에 50kg가 넘어요. 그래서 꽃 장사는 남자들이 없으면 힘들어요. 꽃도 무겁고, 꽃을 담가놓는 물도 무겁잖아요.” 박스가 모두 내려지자, 주문 수량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면서 꽃 진열을 시작한다. 들쭉날쭉 하지 않도록 가지런히 꽃의 머리 부분을 맞춰가며 일렬로 차곡차곡 정리하는 게 노하우. 정리하고 남은 꽃은 바로 냉장 저장 창고로 옮긴다. “꽃을 진열대에 모두 정리해 놓으면 공간에 쌀을 가득 채운 것처럼 뿌듯합니다. 꽃이 모두 팔려나가면 보람도 있고요. 매일 아침 남들보다 일찍 가게에 나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꽃을 좋아하니까 이 일은 늘 즐겁죠.” 꽃 가게 경력 20년의 장용호(49) 씨 손끝에서 장미가 줄을 맞춰 가지런히 정리된다.

“꽃은 그냥 인생 그 자체인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생일, 결혼기념일, 승진...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꽃으로 장식하니까요. 축하할 때, 마음을 고백할 때 그 순간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꽃을 파는 일은 힘들어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내기 위해 새벽잠 쫓아가며 바쁘게 살아가는, 꽃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치열한 밤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아한 꽃을 편안하게 마주할 수 있는 건 아닐까?



[꽃 오래 보관하는 방법]

- 1. 물을 갈아줄 때마다 줄기 끝부분을 조금씩 잘라주면 꽃이 물을 더 잘 흡수한다. 이때 사선으로 잘라주면 물 닿는 면이 늘어나 더 좋다. 특히, 물속에서 잘라주면 싱싱함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 2. 꽃도 통풍이 잘되는 곳에 두어야 오래간다. 가쁜 꽃을 위해 집 안을 환기시키는 것도 잊지 말자.



꽃 박스가 배달되자, 주문 수량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면서 진열한다. 가지런히 꽃의 머리 부분을 맞춰 가며 차곡차곡 정리하는 게 노하우.

은성꽃도매상가

남동구 구월동 819-3
월~토요일 오전 8시~오후 7시
일요일 오전 8시~오후 4시
☎ 032-422-5009



★★★★★
지금까지 이런 장면은 없었다!
이곳은 인천인가. 수원인가?



글 이재승 인천영상위원회 촬영지원팀장



인천 출신 이병헌 감독은 배다리에서 영화 '극한직업'의 30%를 촬영했다.

새해 첫 천만 영화이자 역대 2위 흥행작(2019년 2월 18일 기준)인 영화 '극한직업'의 수원왕갈비통닭 점포의 촬영 장소는 '인천 배다리 헌책방 거리(이하 배다리)'다. '극한직업'을 연출한 이병헌 감독은 인천에서 나고 자란 터라 그의 영화에서 인천이 주요 장소로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만석동, 송월동, 송현동, 용현동 등 인천의 원도심에서 성장한 이병헌 감독은 인천의 옛 정취와 소시민들의 따뜻한 감성을 느끼며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영화 '극한직업'에 등장하는 수원왕갈비통닭 점포는 실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 배다리의 한 팬시점 자리에 오픈 세트를 설치해 촬영했다. 감독과 제작진은 작품의 설정인 형사들이 잠복근무하는 치킨집과 이무배 조직원 건물이 대비되고, 건물 사이의 거리감이 적

당히 있는 곳, 즉 두 공간 사이가 도로인 곳을 필요로 했다. 세련되지 않지만 너무 허름하지도 않은, 적당히 정감 어린 분위기와 클래식한 느낌이 섞인 동네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뒤졌지만 배다리만한 곳이 없었다. 배다리는 영상물 제작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장소로 이미 드라마 '도깨비'를 통해 유명해진 동네다.

영화 '극한직업'의 제작진은 2018년 4~6월 중 총 21회에 걸쳐 배다리에 머물며 촬영을 진행했다. 영화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출연 배우를 포함한 제작진은 3개월간 거의 배다리 주민이 된 듯했다. 누가 배우고 누가 스태프이고 누가 주민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배다리라는 공간에 어우러져 있었다. 영화를 본 관객들은 알겠지만 배다리에서 촬영한 장면에서 극중 상황과 배우, 공간이 이질감 없이 잘 표현된 것은 이러한 현장의 분위기가

반영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고 좋았던 건 아니었다. 한 지역에서 장기간 촬영을 진행하다 보니 촬영 기간 중간에 도로 개보수 공사 진행으로 큰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 다행히 동구청과 공사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공사 진행 구간의 순서를 조정해 도로가 나오는 장면부터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워낙 인기가 있는 촬영 장소이다 보니 영화 '성난 황소'와 드라마 '무법 변호사'까지 총 3편의 영상물 촬영이 비슷한 시기에 겹쳤다. 모든 촬영팀은 각자의 계획과 컨디션 등이 있기 때문에 촬영팀 간 스케줄 조율이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촬영팀 모두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관계이기에 서로 배려하며 촬영을 진행했다.

최근 인천 내 영상물 촬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인천이 지닌 풍부한 로케이션 자원과 지리적 이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천은 촬영하기 좋은 도시'라는 영상물 촬영팀의 인식 변화도 주된 요인이다. 인천시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촬영 협조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배려다. 여기부터 영상물의 촬영은 시작된다. 그렇게 촬영된 영상물은 스크린과 TV를 통해 시민들의 여가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인천의 이미지를 다채롭게 한다.

2019년 첫 천만 영화가 인천 출신 감독의 영화라서, 그 영화를 통해 인천의 배다리를 알릴 수 있어서 반갑다. '극한직업'의 뒤를 이어 인천의 모습을 새롭게 보여줄 작품은 무엇일까? 궁금증을 갖고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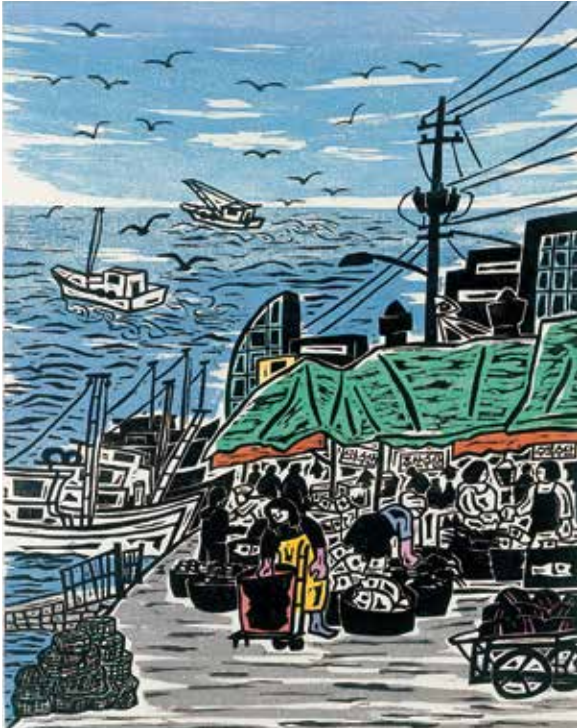
연평도 2010년 11월 23일 다색 목판화 84X122cm 2011년작

남북, 비 온 뒤 하늘 같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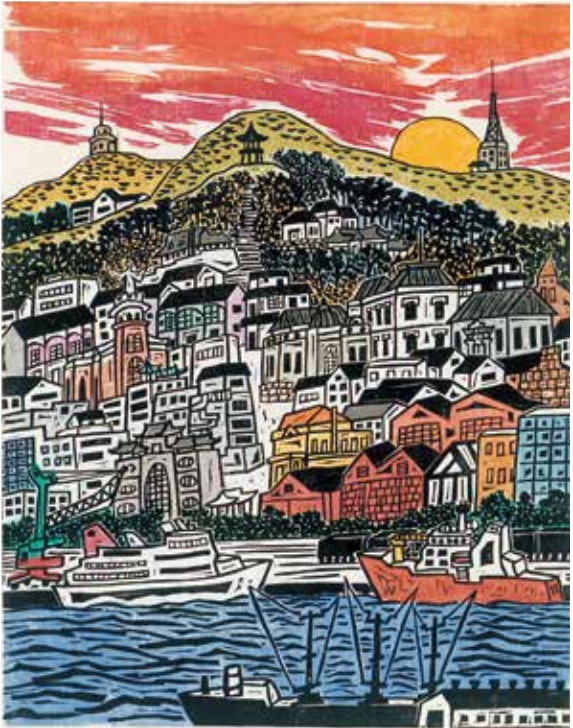
글:그림 홍선웅 판화가
홍선웅은 치열한 현실을 예술로 승화시킨 판화가다. 대표 저서로 <한국근대판화사>가 있다.



연평도 포격 다색 목판화 72X120cm 2012년작



인천 10경-소래포구 다색 목판화 68X54cm 2010년작



인천 10경-해안동 다색 목판화 68X54cm 2010년작

인천항이 내려다보이는 중구 해안동은 근대 건축물이 많은 곳이다. 인천은 1883년 개항과 동시에 박영효와 유길준의 노력으로 도쿄(東京)의 추쿠지(中宮寺) 활판소에서 활판 인쇄기와 정교하게 제작된 연활자를 인천항을 통해 들여온다. 그리고 이 연활자로 그해 10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를 발행함으로써 출판 인쇄 문화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한다.

해안동은 1940년에 인천에서 잠시 활동한 판화가 사토 요네지로(佐藤米次郎)와도 인연이 있다. 그는 일본 근현대 판화의 대표적인 작가이며 서양화가 최영림의 스승인 무나카타 시코(棟方志功)와 동향인 아오모리현(靑森縣) 출신 화가로 ‘인천각’과 ‘월미도 풍경’ ‘해상인천망전’ ‘송도풍경’ 같은 해안동과 근교의 풍경을 다색 목판화로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나의 연작 판화인 ‘인천 10경-해안동’도 인천항에서 바라본 해안동의 진경이어서 지금도 아끼는 작품 중 하나다. 또 하나의 연작 판화인 ‘인천 10경-소래포구’도 포구의 갈매기 떼 울음소리와 어선의 갯내가 물씬 풍기는 삶의 현장을 스케치한 것이기에 더욱 애착이 가는 작품이다.

8년 전 일이다.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던 연평도 포격이 있은 후 인천 작가들과 함께 연평도 현장을 답사한 일이 있다. 그리고 제작한 판화가 바로 ‘연평도 2010년 11월 23일’과 ‘연평도 포격’이다. 포탄으로 시커멓게 탄 마을을 바라보면서 분단을 극복하고 남북의 평화 무드를 조성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고 절망에 빠진 적이 있었다. 그러나 비 온 뒤 깨끗한 하늘이 보이듯 남북 화해의 앞길은 맑아 보인다. 천만다행한 일이다. 이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평화 프로세스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활기차게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선웅



고래를 만난 소녀 김란사(좌)
두꺼비 떼에 습격 당하는 고종 황제(우)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인천시립예술단 합동 공연 ‘100년 후, 꿈꾸었던 세상’.
4개 예술단 230여 명의 단원이 참여했다.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100년 후를 그리며

글 강량원 인천시립극단 예술 감독(‘100년 후, 꿈꾸었던 세상’ 총연출)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시작점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공립 예술단체인 우리가 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 3·1운동 및 4월 11일,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공연 ‘100년 후, 꿈꾸었던 세상’을 제안했다.

공연의 기획이 처음 시작된 것은 2017년 말이다. 인천문화예술회관 관장과 인천시립예술단 4개 단체 예술 감독이 모여 합동 공연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연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2018년 초 몇 차례 회의가 더 진행된 후 극단 예술 감독인 필자에게 총연출 책임이 주어졌다.

곧바로 작가와 작곡가를 섭외했고 전체 일정을 세웠다. 지난해 8월 1차 대본이 탈고됐고 가을을 넘겨 겨울에 작곡이 완료됐다. 대본과 음악을 기초로 핵심 이미지를 책임지는 무대 미술 디자인과 안무가 마무리된 것도 12월 무렵이다. 2017년 말 시작된 프로젝트를 1년 동안 꼼꼼하게 준비했다. 인천은 대한민국 근대화의 창구로, 어느 곳보다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활동을 많이 한 도시다. 또한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의 중심점 역할을 수행

하기도 했다. 그런데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은 남성 중심으로 연구되고 이해되어 온 측면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독립과 대한민국 수립의 절반은 여성들의 참여와 실천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데도 말이다. 더욱이 3·1운동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 유관순 열사가 아니던가.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유관순 열사의 스승인 김란사 열사를 주목하게 됐다. 김란사 열사의 남편인 독립운동가 하상기 또한 지금의 인천시장 격인 인천별감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인천시립예술단 작품의 주인공으로 손색이 없는 인물이었다.

‘100년 후, 꿈꾸었던 세상’은 김란사 열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지만, 여성 독립운동가 전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실제로 전설적인 여성 무장 투쟁가인 윤희순 열사와 여성들로 이루어진 여성의열단, 권번 기생들의 비밀 조직인 기생의열단, 해녀의열단 등 많은 여성 독립운동 조직을 그리고 있다.

3·1운동 기념 공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순국열사, 독립 무장 투쟁 등 무거움과 비장함이다. 하지만 이번 공연만은 그렇지 않기를 바랐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행위가 기쁘고 즐거운 일임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아름다운 무대 그림과 음악, 합창에 정성을 쏟았다. 또한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김란사의 커다란 꿈을 고래로,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을 두꺼비로, 우리 민족을 만국공원에 심은 커다란 나무로 상징화했다.

인천시립예술단 4개 단체 230여 명의 단원이 마음을 모아 올리는 공연이라 가슴이 벅차다. 단원들뿐만 아니라 참여한 스태프 등 모두 300여 명의 인원이 한마음으로 ‘100년 후, 꿈꾸었던 세상’을 만들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꿈꾸었던 세상인 현재, 인천에서 다시금 100년 후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꿈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라가 없으면 가족도 친구도 없다고 하셨죠.”

독립유공자 노성원의 후손 전경선 씨

글·사진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학자풍의 할아버지는
술이 한 잔 들어가면
말씀하셨어요.
‘만주는 추웠고 먹을 것이 없어
가족들이 고생했다.
하지만 나라가 없는 가족이
행복할 수 있겠느냐고.’

시
민
시
장
·
전
경
선

외할아버지는 평소 말씀이 없으셨다. 광야의 소나무 같기도 했고, 흙탕물 위에 피어난 연꽃처럼도 보였다. 몇 마디 하시는 경우가 있기는 했다. 술이 몇 잔 들어갔을 때였다. ‘만주는 추웠고 먹을 것이 없어 가족들이 고생했다. 하지만 나라가 없는 가족이 행복할 수 있겠느냐.’ 설날, 추석과 같은 명절이 오면 고향 평안북도 선천을 떠올리기도 했다. ‘두고 온 내 고향의 봄이 그리구나. 그 맑은 냇물과 봄이면 흐드러지던 들꽃들이...’

“온종일 소반 위에 책을 펴 놓고 계셨어요. 요즘 말로 ‘소확행’이라고 하나? 할아버지는 그저 내 나라, 내 땅에서 마음 놓고 숨 쉬고 살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만족하시며 하루하루를 지내시는 것 같았지요.”

105인 사건 연루, 임시 정부 지원, 신간회 활동 등의 독립운동을 한 노성원(1897~1964)의 외손자 전경선(70) 씨 기억에 남은 외할아버지의 모습은 학자 그 자체였다. 칼바람이 몰아치는 만주 별판을 누빈 독립운동가와와는 어울리지 않는 풍모를 지니고 있었다. 어쩌면 15세의 어린 나이로 독립운동에 뛰어들 뒤 꼬박 35년간 독립운동에 헌신하며 기력을 모두 소진했던 탓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광복을 맞으면서 할아버지께선 가족들을 이끌고 만주를 떠나 노량진으로 왔는데 제가 태어나던 1950년 한국전쟁이 나지 않았어요? 난리통에 할아버지께서 저를 업고 부산으로 피란길에 올랐고, 부산 송도해수욕장 근처에 정착해 저를 키우며 7년 정도 부산 생활을 하셨지요.”

피란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노량진으로 돌아온 건 전 씨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쯤이었다. 사업 수완이 좋은 선친이 수도권에 사업 기반을 잡으면서 외손자를 키우던 장인, 장모를 서울로 모신 것이다. 이후에도 할아버지는 여전히 책과 술을 벗하시다 전 씨가 중학생이 되던 해 조용히 눈을 감았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서울에서 자라고 사업을 하던 전 씨가 ‘인천 시민’이 된 건 지난 1월이다. 대구에서 하던 식료품 매장을 접은 뒤 어디서 노년을 보낼까 고민했는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인천만 한 곳이 없었다.

“노년에 귀촌, 귀농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쉬운 일이 아니지요. 노인들은 병원, 교통, 복지 시설이 잘 돼 있어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곳이 살기에 좋지. 인천은 인구 300만이 넘는 대도시로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강화도, 영흥도와 같이 주변에 바람 쐬러 갈 곳도 많으니 여기만 한 곳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서울에 살 때부터 친구들과 함께 연안부두, 월미도, 인천대공원 등에 자주 놀러 다니며 이미 ‘인천물’이 흠뻑 들어 있었다는 전 씨. 그는 서울, 부산, 대구와 같은 전국 대도시에서 살아왔지만 인천만큼 매력적인 도시가 없는 것 같아 인천 시민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털어놓았다. “더 좋은 건 우리 큰딸이 인천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라오, 허허허.”

오래전 외할아버지께서 딸·사위와 가깝게 살았던 것처럼, 할아버지 나이가 된 그 역시 딸이 먹고사는 땅을 여생의 귀착지로 선택했다. 외할아버지께서 나라를 되찾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내가 살고 싶은 도시’로 인천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나라가 없으면 가족도 친구도 없다는 외할아버지의 말씀이 유난히 크게 들려오는 3·1절을 며칠 앞둔 겨울 한낮, 인천대공원에 눈발이 흩날린다. 눈물인가, 진눈깨비인가. 인천대공원 백범 김구 선생의 동상을 우러러보는 그의 눈가에 물방울이 맺힌다.



CULTURE CALENDAR

MARCH 2019

03

이달의展

- 너와전

2월 22일(금)~3월 8일(금)

갤러리지오
- 자연감각

2월 28일(목)~3월 31일(일)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 제19회 대한민국 제물포 서화대전

3월 1일(금)~7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앙·소·미추홀전시실
- 기억의 흔적과 정체성

3월 5일(화)~14일(목)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나무
- 인천 다큐

3월 5일(화)~14일(목)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다솜
- 2019 인천-안산 연합 난명품전

3월 8일(금)~10일(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앙전시실
- 박재영 개인전

3월 9일(토)~22일(금)

갤러리지오
- 심에 상이 맺히다

3월 19일(화)~28일(목)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나무
- 이남례 개인전

3월 19일(화)~28일(목)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다솜
- 창조미술협회전

3월 22일(금)~28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 이예랑 캘리화원전

3월 23일(토)~29일(금)

갤러리지오
- 도시를 바라보는 10명의 작가展 : 김보섭 작가

3월 27일(수)~4월 9일(화)

인천도시역사관 소암홀(2층 다목적실)
- 이상연 개인전

3월 29일(금)~4월 4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01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인천시립예술단 합동 공연
‘100년 후, 꿈꾸었던 세상’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VIP석 3만원, R석 2만원, S석 1만원
① 1588-2341

인음청소년교향악단 제40회 정기연주회
‘봄의 교향악’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전석 초대
① 032-888-0808

라 푸라 델스 바우스의 ‘천지창조’
아트센터 인천
오후 5시
R석 10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C석2만원
① 032-453-7700

02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인천시립예술단 합동 공연
‘100년 후, 꿈꾸었던 세상’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VIP석 3만원, R석 2만원, S석 1만원
① 1588-2341

라 푸라 델스 바우스의 ‘천지창조’
아트센터 인천
오후 5시
R석 10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C석 2만원
① 032-453-7700

뮤지컬 헬로카봇 시즌4
‘찌릿찌릿 전기 대소동’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30분
R석 5만5,000원, S석 4만5,000원
① 1688-6675

03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인천시립예술단 합동 공연
‘100년 후, 꿈꾸었던 세상’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VIP석 3만원, R석 2만원, S석 1만원
① 1588-2341

뮤지컬 헬로카봇 시즌4
‘찌릿찌릿 전기 대소동’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30분
R석 5만5,000원, S석 4만5,000원
① 1688-6675

09
장사의 소리판 ‘자화상 七’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① 1588-2341



소리새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6시
전석 2만원
① 032-872-5016

10
소중한 우리 것
‘우리 노래, 우리 춤, 우리 가락’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R석 5만원, A석 4만원, B석 3만원
① 010-8720-5964

10
제4회 미추홀 무용단 청소년발레단 정기공연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30분
무료
① 032-765-0220

소리 빛 콘서트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4시
전석 3만원
① 010-7680-8541

16
2019 최현우 ‘THE BRAIN’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7시
R석 7만7,000원, S석 6만6,000원
① 1566-6551

제22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무료
① 032-873-7772

연극 ‘장수상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2시·6시
R석 6만6,000원, S석 5만5,000원
① 1566-6551

17
2019 최현우 ‘THE BRAIN’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1시·5시
R석 7만7,000원, S석 6만6,000원
① 1566-6551



17
연극 ‘장수상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2시
R석 6만6,000원, S석 5만5,000원
① 1566-6551



20
2019 커피콘서트 이현의 오페라
‘팔리아치(Pagliacci)’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5,000원
① 1588-2341

마티네 콘서트 ‘조재혁의 뮤직 인사이트’
아트센터 인천
낮 12시
R석 2만원, S석 1만5,000원
① 032-453-7700

21
국악과 함께하는 ‘Do Dream 콘서트’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미추홀
오후 7시
무료
① 032-899-1517

23
어린이 뮤지컬
‘2019 어린이 율동놀이 뮤지컬 호비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전석 3만5,000원
① 1644-5564

가족 뮤지컬 ‘런닝맨’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30분
R석 5만5,000원, S석 3만3,000원
① 1544-3901

24
이승환 투어 ‘최고의 하루’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R석 14만3,000원, S석 12만1,000원,
A석 9만9,000원
① 1688-6675

어린이 뮤지컬
‘2019 어린이 율동놀이 뮤지컬 호비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전석 3만5,000원
① 1644-5564

가족 뮤지컬 ‘런닝맨’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30분
R석 5만5,000원, S석 3만3,000원
① 1544-3901



26
크리스티안 짐머만 피아노 리사이틀
아트센터 인천
오후 8시
R석 14만원, S석 10만원, A석 7만원, B석 4만원
① 032-453-7700

27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 연주회 실내악 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5,000원
① 032-438-7772

28
가족 뽀로로쇼 ‘월드스타 뽀로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8일/29일 오전 9시 40분, 11시 10분
30일/31일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30분
R석 5만5,000원, S석 4만4,000원
① 1566-6551

※ 상기 공연·전시 일정은 상황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나온 100년을 기리며 새로운 100년을 그리다

신채호 선생은 말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이 더욱 묵직하게 파고드는 이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뿐 아니라 ‘오늘’도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인천의 오늘,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100년 전 그날의 외침을 기리고,
새로운 100년을 그리며, 우리 시가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연다.



백범 김구 선생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인천개항박물관 기획 전시

백범 김구 선생의 발자취와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시설, 독립운
동가에 얹힌 역사적 공간 등을 소개하는 기획 전시가 열린다.
전시에서는 김구 선생의 축항(인천 내항) 노력 생활 및 인천 감
리서 관리 자료와 1910년대 경성감옥 인천분감 자료 등 의미
있는 사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일시 : 3월 1일~5월 31일 낮 12시~오후 6시(월요일 휴관)
장소 : 인천개항박물관 기획전시실
문의 : 인천개항박물관 032-760-7508

사진전 ‘잊혀진 흔적’

인천아트플랫폼이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사진전을 연다. 일
제강점기 항일 투쟁과 민족 문화 수호를 위해 만주로 이주한 조
선인과 그들의 후손인 조선족의 삶을 조망한다. 1990년대 초부
터 20년간 중국에서 항일 운동의 흔적을 수집하고 독립운동가
후손과 재중 동포의 모습을 찍어온 사진가 류은규의 작품 70여
점과 아카이브 250여 점을 선보인다.

일시 : 2월 28일~3월 31일 낮 12시~오후 6시(월요일 휴관)
장소 : 인천아트플랫폼 B동 전시장, 윈도우 갤러리
문의 : 인천아트플랫폼 032-760-1006



사진전 ‘잊혀진 흔적’ 중
작품 ‘그리운 만남’

대한민국 임시 정부 직원 일동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북 콘서트&작은 전시

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에서 북 콘서트와 작은 전시를
개최한다. 북 콘서트에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단행본 <3·1
운동의 문화사>를 펴낸 저자 권보드래가 초청되어 독자들을 만
난다. 3·1운동 관련 희귀 문학 자료를 전시하는 작은 전시는 김
남천 저 <삼일운동>, 강용홀 저 <삼일기념시집> <The Grass
Roof>, 이의경 저 <압록강은 흐른다> 등 분기별로 자료가 전시
된다.

[북 콘서트]

일시 : 3월 15일 오후 7시~9시
장소 : 한국근대문학관 3층 강의실
문의 : 인천문화재단 032-455-7100

[작은 전시]

일시 : 4월~12월
장소 : 한국근대문학관 1층 로비
문의 : 인천문화재단 032-455-7100

각 군·구에서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미추홀구 ‘영화공간 주안’에서 영화 상영과 역
사 콘서트, 체험 행사를 만날 수 있으며, 중구에서는 5,000여 명이 참여하
는 대규모 기념 문화 행사가 열린다. 검단도서관은 ‘리멤버 3·1’이라는 이름
으로 위인전 및 관련 도서 전시를 진행한다.

트라이볼 ‘문화가 있는 날’

감각적인 문화 공간 트라이볼에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
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매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펼친다.
항일 운동과 관련된 가곡과 헝가리 무곡 등 민족주의 색채를 띤
곡들로 구성된 콘서트가 관객을 찾아간다.

일시 : 3월~11월
장소 : 송도국제도시 트라이볼
문의 : 인천문화재단 032-455-7100

제100주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기념식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규모로 개최되던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
립 기념식이 100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 경축하는 행사로
확대 추진된다.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인
이번 행사에는 1,000여 명의 인천 시민이 함께한다.

일시 : 4월 11일 오전 10시~오후 1시
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예정)
문의 : 광복회인천지부 032-429-4650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를 지켜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이슈가 뜨겁다. 이슈만큼 지구도 뜨겁다. 온실가스 때문이다. 대한민국 전체가 온실가스 줄이기에 팔을 걷어붙인다. 우리 시도 구체적인 감축 로드맵을 설정했다. 오는 2030년까지 2015년 대비 31% 감축이 목표다.

산업 도시에서
청정 도시로

지금 인천은?

2015년 인천 온실가스 배출량

1,405만7,000톤 CO2-eq

미래 인천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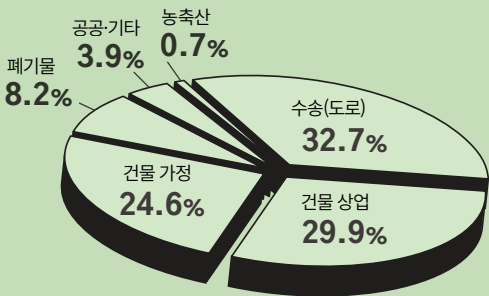
2030년 인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1,721만3,000톤 CO2-eq

2015년 대비

22.5% 증가 전망

부문별 배출전망치(BAU)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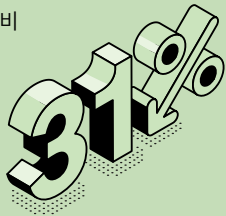
추가적인 감축 노력 없이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 예상되는 배출전망치로,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률, 국제 유가, 에너지 효율 등이 반영된 수치

2030년 인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배출량

1,187만5,000톤 CO2-eq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1% 감축 목표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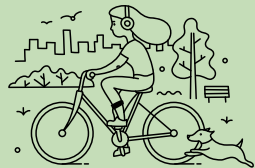
청정 성장 전략을 통한
녹색 수도 인천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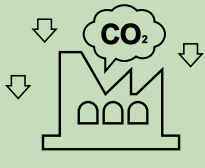
[목표]

신기후 체제를 선도하는 청정 성장(Clean Growth) 도시 조성

시민이 만드는 저탄소 도시



저탄소화 청정 성장 도시



온실가스 감축 선도 도시



[전략]

건물(가정·상업) 부문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도시



공공·기타, 농축산 부문
청정에너지로 만드는
녹색 도시



수송 부문
친환경으로 이동하는
맑고 깨끗한 도시



폐기물 부문
에너지 재이용
자원 순환형 도시



NEWS CLIP

인천시, 아시아 최초
‘글로벌 국가적응계획
국제포럼’ 개최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환경 관련 세계적 포럼이 개최된다. 유엔 공식 회의인 ‘글로벌 국가적응 계획 국제포럼’이다. 4월 8일부터 12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국가 기후 변화 적응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에 대한 논의 및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300여 명의 기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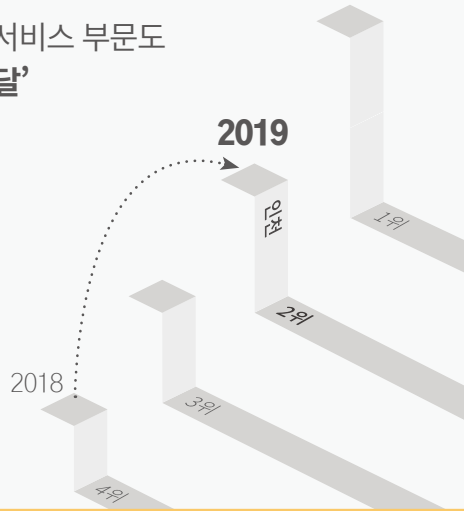
NEWS



인천시,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재정 역량 1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제치고 #1위 등극
#지속적인 지방 채무 감축 노력의 #값진 결실

01



행정 서비스 부문도
‘은메달’

2019

2018

#재정 역량 1위, 행정 서비스 2위로 #종합 순위 2위!
지난해 종합 4위에서 #두 단계 꺾춤

02



인천 재정 신호 ‘파란불’

#투자 활성화에 따른 자체 세입 비율과 지방세 징수율
지표 우수 #송도·청라·영종 개발 사업으로
#재정 역량 지속 상승 기대

03



시민 행복 ‘탄탄대로’

#300만 인천 시민을 위한, 투명하고 든든한 재정 관리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04

더 크게 보고, 더 공감하는 인천 뉴스 +

우리 시는 고용노동부와 50·60대의 경력을 활용한 고용 지원 사업인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우리 시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5,600억원을 들여 시내 46곳에 서울 여의도 면적(2.9km²)과 맞먹는 공원을 조성한다.

해양수산부는 4월 1일부터 서해 5도 어장을 현행 1,614km²에서 245km² 늘어난 1,859km²까지 확장한다고 발표했다. 야간 조업도 1시간 허용한다.

택시 기본요금이 3월부터 3,800원으로 인상되고, ‘시계 외 할증률’은 20%에서 30%로 오른다.

우리 시가 생계를 위해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안전 조끼와 야광 안전띠 등 안전용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인천 지역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4.37% 올랐다. 인천 표준지평균지가는 m²당 56만 6,791원으로 집계됐다.

NEWS

BRIEF

2022년까지 46곳에 ‘여의도 면적’ 공원 조성



우리 시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5,600억원을 들여 시내 46곳에 서울 여의도 면적(2.9km²)과 맞먹는 공원을 조성한다. 시는 지난 2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 미집행 공원 대응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로 내년에 자동 실효되는 공원 부지 7.23km²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국·공유지, 재정비지역 등 4.32km²를 제외한 46곳, 2.91km²를 공원 조성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 토론회와 7차례에 걸친 민관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조성 주체별로는 재정 사업이 43곳, 2.34km²이고 민간 특례 사업이 3곳이다. 시는 토지 보상과 공원 조성에 필요한 총 5,641억원 가운데 이미 확보한 638억원을 뺀 5,000억원을 시 일반회계 2,345억원(지방채 600억원 포함), 수도권 특별회계 854억원, 구·군비 1,804억원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문의 시 공원녹지과 032-440-3672



강화해안순환도로 건설 ‘국비 지원’ 탄력

강화해안순환도로 미개통 구간이 정부의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말 개통 예정인 해안순환도로 2공구(대산리~당산리)에 이어 하반기 4공구 일부 구간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전체 구간을 완공할 계획이다. 총연장 91.4km에 달하는 강화해안순환도로가 완성되면 현재 2시간가량 걸리는 해안순환 시간이 30여 분으로 단축된다. 정부의 이번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는 영종도~신도 평화도로 3.5km 구간 건설 사업도 새롭게 반영됐다.

문의 시 도로과 032-440-3774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확대

우리 시는 자동차 배출 가스 감소와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사업 규모는 지난해 240억원보다 33.8% 늘어난 321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약 2만 대에 이른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우리 시 등록 차량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때 운행이 제한되는 배출 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 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이다.

문의 시 대기보전과 032-440-3554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안전용품 지급

우리 시가 생계를 위해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월부터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2,139명과 재활용품 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여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교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안전 조끼와 야광 안전띠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 혹한기 방한복과 작업화, 여름철 폭염 대비 안전용품도 지급할 계획이다.

문의 시 노인정책과 032-440-2814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 서비스 일자리 사업 추진

우리 시는 고용노동부와 50·60대의 경력을 활용한 고용 지원 사업인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천 지역 50·60대는 약 83만 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한다. 시는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 인력을 선발·재교육해 장난감 수리 전문가, 청소년 진로 컨설턴트, 어르신 돌봄 파트너 등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문의 시 일자리경제과 032-440-4232



‘시민 인권 보장·증진 조례’ 시행

우리 시는 ‘시민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다양한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조례에 따라 오는 4월 인권위원회와 인권보호관회의체를 설치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시의 인권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권고를 맡는 정책 심의 기구로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인권보호관회의체는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결정·권고 기능을 하는 구제 기구다. 시는 인권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상·하반기에 개최하고 지역 인권 네트워크도 구성할 예정이다.

문의 시 혁신담당관실 032-440-1657

국립세계문자박물관 7월 착공



송도국제도시에 건립되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오는 7월 착공한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오는 2021년 개관을 목표로 송도 센트럴 파크에 연면적 1만5,650m² 규모로 건립된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유무형의 세계 각국의 문자 자료를 수집해 전시하고 문자 언어 연구와 학술 교류, 세계 문화 체험 등도 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문의 시 문화시설과 032-458-7252

섬마을 100원 행복 버스 시동

우리 시와 옹진군은 지난 2월 11일부터 버스와 택시가 없는 옹진군 섬 지역에 주민이 1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콜버스를 도입했다. 버스는 주민이 직접 전화로 부르고 100원을 내면 이용할 수 있으며 마을의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하루 8시간씩 운행한다. 우선 소청도 3개 노선(소청선착장↔출장소·출장소↔소청등대·소청보건지소↔천연기념물)과 대이작도 3개 노선(선착장↔마을회관·마을회관↔작은폴마을·해양생태관↔계남마을)에서 시범 운행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의 시 택시화물과 032-440-3804



2019년 표준공시지가 4.37% 상승



올해 인천 지역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4.37% 올랐다. 지난 2월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인천 지역 상승률은 전국 평균(9.42%)은 물론이고 서울(13.87%), 경기(5.91%)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시·도 중에서는 충남(3.7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우리 시 표준지공시지가 최고 지역은 부평구 부평동 212-69 상가로 m²당 1,215만원이며, 최저 지역은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283 임야로 m²당 320원이다. 우리 시 전체 표준지평균지가는 m²당 56만6,791원으로 집계됐다. 문의 시 토지정보과 032-440-4562

군부대 유휴 부지 시민 품으로

부평 3보급단 도심 외곽 이전 등 부대 재배치로 여의도 절반 면적에 이르는 땅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우리 시와 국방부는 지난 1월 3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군부대 재배치 사업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정책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핵심은 우리 시 6개 예비군훈련장을 부평구 일신동과 계양구 독실동 등 2개 훈련장으로 통합하고, 부평구 산곡동 3보급단을 부평구 일신동 17사단으로 이전·통합하는 부대 재배치안에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부대 이전에 따라 3보급단 89만m² 등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이르는 약 120만m²의 유휴 부지가 생길 것으로 보고 이곳에 공원 및 문화 공간과 필수 간선도로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 시 시설계획과 032-440-4662

백령·대청·연평어장 245km² 확장, 야간 조업 허용

해양수산부는 4월 1일부터 서해 5도 어장을 현행 1,614km²에서 245km² 늘어난 1,859km² 확장한다고 발표했다. 또 야간 조업도 1시간 허용한다. 이번에 확장될 연평어장은 815km²에서 905km²로 90km²(동측 46.58km²·서측 43.73km²) 늘고 B 어장 동측 수역에 154.55km² 규모의 D 어장이 신설된다. 늘어난 245km²는 여의도 면적(2.9km²)의 약 84배, 백령도(45.83km²) 면적의 5.3배에 달한다. 이와 함께 1964년부터 금지된 야간 조업이 55년 만에 일출 전과 일몰 후 각각 30분씩 총 1시간 허용된다. 해수부는 어장 개장에 맞춰 다음 달 ‘어선 안전 조업 규정’을 개정하고 어장 관리·조업 지도는 중앙정부·지자체가, 경비는 해군·해경이 맡도록 했다. 문의 시 수산과 032-440-4862

택시 요금 5년 만에 인상, 기본요금 3,800원

우리 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3월부터 3,800원으로 인상된다. 인천시 물가대책위원회는 택시 기본요금은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우리 시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적용되는 ‘시계 외 할증률’은 20%에서 30%로 올린다고 밝혔다. 거리 요금도 현행 100원당 144m에서 135m로, 시간 요금도 100원당 35초에서 33초로 줄인다. 문의 시 택시화물과 032-440-3803

전자상품권 ‘인천e음’ 대학생 서포터즈 발족

우리 시는 지난 2월 18일 전자상품권 ‘인천e음’ 사용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총 40개 팀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는 10개 구·군 명소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 전자상품권을 소개하고 SNS 채널을 통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한다. 시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출시한 ‘인천e음’은 모바일 앱이나 실물 카드에 자신의 은행 계좌를 연결해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결제 금액의 4~8%를 캐시백 포인트로 지급한다. 문의 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12

인천항 원양항로 선박 예·도선료 감면

올해부터 인천항에 입출항하는 원양항로 선박의 예·도선료가 감면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과 미국·유럽 등지를 잇는 원양항로 활성화 위해 인천항도선사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와 관련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부터 미주(남미 포함)·유럽·대양주·아프리카 등 원양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이 인천항에 입출항할 때 예선료 5%와 기본 도선료 10%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이들 선박은 인천항 만공사가 징수하는 입출항료와 접안료도 50% 감면받는다. 문의 인천항만공사 032-890-8000



사진 © 류창현

소상공인에 400억원 특별 금융 지원

우리 시가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특별 금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월 18일 미추홀타워에서 농협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특별 금융 지원(400억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 업체당 최저 2%대 저금리로 최대 5,000만원까지 특례 보증한다. 대출 이자의 일부(1.5%)를 지원하며, 시가 32억원, 농협은행이 25억원을 보증 재원으로 특별 출연했다. 문의 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27



초·고등학교 4곳에 ‘명상숲’ 조성

우리 시가 연수구 대건고, 부평구 진산과학고, 강화군 강화고·삼성초에 ‘명상숲’을 조성한다. 이 사업은 학교 공간 일부에 숲을 만들어 청소년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고 학교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자치구와 학교가 명상숲 조성 협약을 맺은 뒤 세부 실시 설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문의 시 공원녹지과 032-440-3693

여성 및 가족 분야 사업에 497억원 투입



우리 시가 올해 여성·가족 분야 예산을 지난해보다 47% 늘어난 496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만 18세 미만으로 4세 높이고 지원금도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경력 단절 여성 1만5,000명에게 취업 상담, 직업 교육 훈련,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맞벌이 가정의 초등생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8곳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시 여성정책과 032-440-2692

고해상도 항공 영상 서비스 제공

우리 시는 지난해 3~7월 촬영한 고해상도 항공 영상을 시민들이 토지 이용과 건축물 현황 파악 등에 활용하도록 인터넷으로 제공한다. 스마트GIS인천(imap.incheon.go.kr) 사이트를 통해 198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촬영한 항공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 시민들이 소송 자료, 재개발 입주권·분양권 확인 자료 등으로 쓸 수 있도록 국토 정보 플랫폼(map.ngii.go.kr)을 이용한 우리 시 항공 사진 온라인 무료 발급 서비스도 제공한다. 문의 시 토지정보과 032-440-4587

COUNCIL
NEWS

주요 현안 사업 현장 방문 실시



인천시의회의는 지난 1월 30일 시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방문한 곳은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 인천대교, 수도권매립지,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등으로, 의원들은 사업 현황 브리핑과 현안 사항 청취 및 개선 사항 토의 등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전체 의원들은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개장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인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의했다. 이어 인천대교 교통서비스센터에서는 재해·재난 대응 상황을 점검한 후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수도권매립지로 자리를 옮겨 매립장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중도매 상인 등 관계자들을 만나 “원활한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시의회 의장은 “향후에도 주요 현안 사항과 관련된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민생 중심의 의회를 만들고,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의정 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의장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동참

인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2월 19일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의장은 웅진군수로부터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캠페인 지명을 받고 텀블러 인증 사진과 관련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며 캠페인 동참을 인증했다.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캠페인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세계자연기금(WWF)과 제주 패스가 공동 기획해 ‘플라스틱·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환경 운동이다. 의장은 “300만 인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실천해 맑고 푸른 인천시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남동구청장과 강화군의회의장을 각각 지명해 캠페인을 이어갔다.

‘사랑의 떡국 나눔’ 봉사활동 나서



인천시의회회가 설 연휴를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떡국 나눔 봉사에 동참했다. 의회는 지난 2월 4일 부평역 앞 광장에서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중앙회와 함께 ‘사랑의 떡국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의원들은 이날 홀몸노인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 계층에게 떡국을 나눠주며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시의회 의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위해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생각하는 의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 인사 간담회

인천시의회의는 인사간담특별위원회를 열고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 간담회를 열었다. 인천시의회의는 개방형 공직 후보자의 인사 검증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 1월에 ‘인천광역시의회 인사 간담회 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인사 간담회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인사 검증 대상을 공사·공단까지 확대해 인천관광공사 사장과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인사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올해는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별위원회는 내정자가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과 공직관·가치관,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간담회에서 검증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학금 1억2,024만원 고교생 18명에 전달



인천시의회의는 지난 1월 31일 본회의장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온 고교 졸업 예정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사랑 나눔 장학금 1억2,024만원을 전달했다. 인천시의회의의 사랑 나눔 장학금은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6년간 인천시의회 의원 기부금으로 장학금을 적립한 후, 장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회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2년간 전체 시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5만원씩 기부해 장학금을 조성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적립한 장학금 1억원은 2013년에 장학생 24명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번에 전달하는 장학금까지 포함하면 장학금 누계 금액이 2억2,000만원을 초과해 타 시·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의정 활동 사례로 남게 됐다.

교육위원회, 개교 예정 학교 방문 현장 소통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월 개교 예정 학교인 인천미송초등학교, 능허대중학교, 강화여자중학교, 중산초등학교, 중산중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학교 개교를 위해 애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에서 교육위원들은 시설 공사 현황, 학생 수용상의 적정성, 안전한 통학로 확보, 학교 급식 준비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에게 개교 준비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인천미송초등학교, 중산초등학교, 중산중학교는 지역 개발에 따른 유입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능허대중학교와 강화여자중학교는 이전 재배치로 개교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인천의회저널>
구독 안내



더욱 자세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인천의회저널>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하신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인천의회저널>에는 역사, 관광, 지역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 의회사무처 ☎440-6137~8 ㉠www.icouncil.go.kr

인천을 그리다
Drawing & Memories

300만 인천 시민이 살아가는 소중한 삶의 무대,
살고 싶은 도시, 행복한 인천을 여러분의 손끝으로 그려주세요.

최초의 공립학교에서 시작된 ‘대한 독립 만세’

1907년 5월, 동구 창영동에 인천공립보통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인천 최초의 공립학교였습니다. 1919년 3월, 3·1운동의 울림이 학교에 닿았습니다. 동맹 휴학을 단행한 학생들은 거리로 나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인천의 3·1운동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창영초등학교에는 인천공립보통학교의 교사(校舍)가 남아 있습니다. 어렵던 시절, 우리 민족의 자본으로 건립된 의미 있는 유산입니다. 100년 넘는 세월을 굳건히 버텨온 모습이 울곧던 순국선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학교 곳곳 남아 있는 시리지만 값진 흔적들. 창영초등학교는 인천의 소중한 유산이자 살아 있는 역사입니다.



사진 © 류정현

그림의 선을 따라 드로잉한 후 채색해 보세요.
두 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 2월호 드로잉 인천 당첨자를 소개합니다.



정석임 부평구 부흥로



조정희 남동구 논고개로



주미숙 서구 경서로



김일경 부평구 원적로



방서원 서구 청라한내로

일러스트 박성경 작가

창영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지방유형문화재 제16호 /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지정(2002년))
동구 우각로15번길 16

작품을 보내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 ‘드로잉 인천’ 보내는 방법
- 1) 우편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미디어담당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2)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incheon.go.kr → 독자마당 파일 첨부
 - 3) 기간 : 2019년 3월 20일까지

문의 032-440-8305 ※ 응모하실 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INFO
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01 2019 시정 분야별 업무 토론

우리 시는 시민 말씀에 귀 기울여 시정을 펼칩니다. 시는 시정 분야별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열린 업무 토론을 개최합니다.

분야	토론 주제	시기	장소	부서
일자리·경제	더 좋은 일자리, 함께 만드는 인천 (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 방안 중심)	3월 13일	미추홀타워	일자리경제과
환경	미세먼지 저감 및 악취 민원 개선 방안	3월 15일	미추홀타워	대기보전과
원도심 (균형 발전)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도심 균형 발전 방안	3월 19일	시청 대회의실	재생정책과

문의 : 시 정책기획관실 ☎ 032-440-2132

02 국가 안전 대진단 실시

중앙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국민 모두가 참여해 사회 전반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예방 활동인 국가 안전 대진단을 실시합니다.

기간 : 2월 18일~4월 19일
대상 : 7개 분야 5,479개소(최근 사고 발생 시설, 시민 관심 분야 위험성 높은 시설 등)
방식 : 중앙·지방·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
방법 : 자율 점검, 안전 신고
문의 : 시 안전정책과 ☎ 032-440-5754

03 신중년 사회 공헌 활동 지원 참가자 모집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보유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중년 사회 공헌 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 : 총원 시까지 수시 모집
모집 대상 : 참여자 100명, 참여 기관 60곳 이상
신청 방법 : 방문 및 이메일 접수(✉ schw2014n@wwp.or.kr)
참여 대상 : 만 50세 이상 인천시 거주 퇴직 전문 인력
참여 내용 : 사회 공헌 활동 및 교육 참여, 활동 참여 시 지원금(1일 최대 2만5,000원 지급)
참여 기관 : 공공기관, 비영리법인·단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참여 내용 : 사회 공헌 인력 참여 기관 배치
문의 :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사람들 ☎ 032-715-7851

04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 교육

인천시와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 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기간 : 3월 5일~8일 오전 10시~오후 1시
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회의장
대상 : 인천 시민 100명(선착순 접수)
신청 : 전화 접수
수강료 : 무료(3일 이상 참석자 수료증 제공)
문의 : 시 대기보전과 ☎ 032-440-3526,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 ☎ 02-958-7374



05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농협, 수협, 산림조합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선거일 : 3월 13일 오전 7시~오후 5시
문의 : 전국 공통 ☎ 1390

06 도시 탐사 시즌3 수강생 모집

인천도시역사관에서 도시 탐사 시즌3, ‘인천의 나무 이야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일시 : 3월 26일 오전 10시~낮 12시, 3월 27일 종일
장소 : 인천도시역사관 3층 중강의실 및 답사지 일대
대상 : 성인 20명
수강료 : 무료
신청 : 홈페이지 선착순 신청(✉ icmuseum.incheon.go.kr)
신청 기간 : 3월 18일 오전 9시~22일 오후 6시
문의 : 인천도시역사관 ☎ 032-850-6031

07 한마음 치매 극복 전국 걷기

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를 실천하며, 치매 극복을 기원하는 2019년 한마음 치매 극복 전국 걷기 행사가 개최됩니다.

일시 : 4월 13일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장소 : 송도국제도시 미추홀공원 열린마당
대상 : 누구내(단, 접수 정원 초과 시 조기 마감)
참가비 : 무료
신청 방법 : 주민등록 기준 각 군·구 치매안심센터
문의 : 인천광역치매센터 ☎ 032-472-2027~9

08 인항야간학교 초·중·고등학생 모집

인천 최초이자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야학인 인항야간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교육 과정 : 초·중·고등 과정 각 1년 수료(초등 과정은 한글반 병행)
모집 인원 : 남녀 00명(연령 제한 없음)
수업 시간 : 월~금요일 오후 6시 30분~9시
원서 접수 : 상시 모집
모집 특전 :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제출 서류 : 입학 원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여권 사진 3매
문의 : 인항초중고등야간학교 ☎ 032-772-4061,
✉ www.inhyang.net

09 인천국악회관 65기 수강생 모집

사)인천예총 국악회관은 다양한 국악 강좌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강좌 기간 : 4월 1일~6월 22일(3개월) *개강 후 중도 수강 가능
접수 기간 : 기존 회원 3월 4일~8일 / 신규 회원 3월 11일~22일
장소 : 인천국악회관(미추홀구 수봉안길 78)
대상 : 청소년, 주부, 일반인, 직장인 *경로우대
문의 : 국악회관 ☎ 032-876-8364, ✉ www.kukakhall.co.kr

10 인천 지역 공기업 설명회 개최

2019년 인천 지역 공기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공기업 채용에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3월 8일 오후 1시~5시
참가 기업 : 11개(인천 5개, 국가 6개)
인천관광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신청 방법 : KT&G상상univ 홈페이지(✉ www.sangsanguniv.com)
문의 : 시 일자리경제과 ☎ 032-440-4244

11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 사업 공모

민간 및 공공 문화 공간과 유휴 공간을 시민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2019년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접수 기간 : 3월 6일~8일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접수처 : 군·구 소관 사업 부서(기존) 및 시 문화예술과(신규)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거주지 또는 생활 권역이 인천시인

단체 또는 개인

지원 금액

▫ 신규 : 1,200만원 이내/개소당(차등 지원)

▫ 기존 : 1,000만원 이내/개소당(차등 지원)

지원 내용

▫ 문화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필요 경비

▫ 문화 공간 조성에 필요한 소규모 수선비

문의 : 시 문화예술과 ☎ 032-440-3977

12 안심 드림(DREAM), 안심지킴이집 운영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인천 조성을 위해 인천지방경찰청과의 협약을 통해 24시간 안심지킴이집을 운영합니다.

운영 기간 :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

운영 방법 : 24시간 편의점을 긴급 대피 가능한 여성·아동 안심 지킴이집으로 지정 운영/위기 발생 시 비상벨을 통해 경찰청 핫라인으로 신고, 안심 귀가 지원

지정 대상 : 관내 한국편의점협회 5개 회원사(GS25, 7-ELEVEN, CU, MINISTOP, C-SPACE) 1,700개소

지원 내역 : 안심지킴이집 간판 및 원터치 비상벨 설치

문의 : 시 여성정책과 ☎ 032-440-2757



13 제2기 인천여성복지관 수강생 모집

인천여성복지관에서 2019년도 제2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대상 : 만18세 이상 인천 시민(남성 포함)

과목 : 양식조리기능사 및 김치&전통 밑반찬, 3D 프린팅 등 75개 과목

접수 기간

▫ 전문·실용 창업 과정 : 3월 27일~4월 15일

▫ 문화 아카데미·특강 : 3월 28일~4월 15일

교육 기간 : 4월 8일~6월 22일(3개월 과정)

접수 방법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women-center.incheon.go.kr)

문의 : 인천여성복지관 교육팀 ☎ 032-440-6540

14 집단 상담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의욕 고취, 구직 기술 향상을 위한 직업 진로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상 : 취·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기간 : 연중, 월 2회 실시/주 5일(1일 4시간)

교육비 : 무료

접수 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접수(선착순)

문의 : 인천여성복지관 ☎ 032-440-6554

15 인천인력개발원 2019년 국비 교육생 모집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에서 국비 지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일시 : 3월 4일 오후 2시~5시

교육 과정 : 스마트 공장 기반 임베디드 시스템 구축, CAD/CAM 실무, 전기 공사 설비, 스마트 팩토리(로봇 PLC) 제어, 3D 프린터 활용 금형 CAD/CAM, 가구 설계 제작, 태양광 스마트 전기 제어 등

혜택 : 협약 업체 취업 알선, 자격증 취득(기능사 필기 시험 면제), 교육비 전액 무료, 기숙사, 식사, 교재 및 재료 무료 제공, 통학생 교통비 지급

문의 :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 ☎ 032-810-6520

BOOK INFO

엄마의 일기장



지은이 전병호
184쪽, 1만3,000원
퍼낸 곳 생각나눔

인천중부경찰서 하인천지구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저자가 돌아가신 장모의 생전 글을 모아 <엄마의 일기장>을 펴냈다. 저자의 장모는 인천시평생학습관 글쓰기 과정을 통해 늦깎이 배움을 이어가던 중 2018년 10월 췌장암 선고로 받고 타계했다. 평소 틈틈이 써놓은 글을 사위가 장모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해설을 덧붙이고 그림을 넣어 완성했다. 책에는 장모가 남긴 행복했던 삶의 장면들, 장모에 대한 저자의 애절한 사랑과 그리움, 가족들이 남긴 애잔한 추모 글 등이 진정성 있게 담겼다.



RE:ID
인천의 재발견

206쪽, 비매품
퍼낸 곳 인천광역시 미디어담당관실

‘오래된 골목을 비추는 햇살처럼, 인천의 내일이 더 밝게 빛납니다. 그RE운, 그RE는, 그RE될 인천’. 인천 사람도 미처 알지 못하는 ‘진짜 인천’을 만난다. 인천광역시 시청 홍보 단행본 <RE:ID, 인천의 재발견>이 발간됐다. 도시 곳곳 살아 숨 쉬는 인천의 소중한 가치를 되짚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천 사람들의 삶을 진솔하게 담았다. 오래되었지만 더 새롭고 빛나는 인천만의 숨은 콘텐츠들을 ‘재발견’해 한 권의 책에 담았다. 여기에 로컬 지수 테스트, 시민 인스타그램 속 인천, 랜드마크 투어 등 다양한 인천 정보도 함께 수록했다.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인천 冊[책]



망국의 역사 위에 내던져진
마지막 무관생도들.
그들은 어떻게
조국의 운명을 껴안았는가.



마지막
무관생도들

지은이 이원규
512쪽, 1만8,500원
퍼낸 곳 푸른사상

저자 이원규는 1947년 인천에서 출생, 인천고등학교와 동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젊은 시절 교고 교사로 일했다. 등단 이후 인천과 서해를 배경으로 분단 문제를 다룬 소설들을 주로 썼으며, 분단에 대한 진보적 시각을 온건하게 표현한 작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무관생도 45명의 삶을 냉정하게 조명함으로써, 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 묻힌 진실을 밝혀낸 이원규의 장편 소설 <마지막 무관생도들>. 1907년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며 무관학교에 남게 된 45명 마지막 생도들에 대해 작가는 10년에 걸쳐 일본 국립공문서관 등에서 발굴한 미공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적을 추적해 굴곡진 근현대사를 소설적 형식으로 복원했다.

인천서점 : 중구 제물량로218번길 3, H동 1층(인천아트플랫폼)
☎ incheon-librairie@naver.com

3·1절 100주년, 다시 부르는 인천의 산하

글·사진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여보게 기자 양반, 뭐하려고 나를 신문에 낸다는 겐가. 난 싫으니까 어여 가봐. 한 움큼의 약을 입에 털어 넣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A할머니가 손사래를 쳤다. 물에 말아 먹다 남은 밥과 잎이 마른 김치 조각, 깻잎 몇 장이 덩그러니 올라 있는 밥상이 처연했다. 약봉지가 나뒀구는 동굴 같은 단칸방에서, 온종일 누운 채로 할머니는 ‘연명’하고 있었다. 신문 기자 초년병 시절, 수소문 끝에 찾아낸 할머니는 일본군 성노예로 생지옥을 경험했고 광복과 함께 풀려난 뒤 평생을 혼자 살아왔다고 했다. 고향과 가족은 머릿속에서 지운 채로.

1997년 여름에 만난 ‘훈 할머니’는 아예 고국 땅조차 밟지 못한 경우였다. 열여섯 살 때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종전 후 캄보디아에 정착해 살던 할머니를 찾아낸 사람은 인천의 한 사업가다. 한국인을 보자 수줍게 “인천…”이란 단어를 내뱉은 ‘훈’이란 이름을 가진 할머니를 그는 인천으로 모셔왔고 할머니의 ‘고향 찾기’가 시작됐다. 수개월 동안 인천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애썼으나 허사였다. 전국의 언론이 가세한 가운데 마침내 경남 마산시 진동면이 할머니의 고향이란 사실이 밝혀진 것은 두 달도 더 지나서였다. 할머니는 성씨가 ‘인천 이 씨’였기 때문에 인천이란 단어를 기억하고 있었을 뿐, 인천은 그녀의 고향이 아니었다. 훈 할머니는 이후 한국에서의 삶을 시도했으나 적응하지 못하고 프놈펜으로 되돌아가 2001년 눈을 감았다. 얼마 전 고 김복동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생존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3명이라고 하지만, 제2의 A할머니, 제3의 훈 할머니처럼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 단언한다.

19세기 제국주의 열강들의 아시아, 아프리카 식민 지배는 대개 외교권과 군대통수권만 강탈하는 형태였으나, 일본의 식민 지배는 조선을 완전히 ‘일본화’하는 것이었다. 조선총독부를 중심으로 행정까지 장악한 일제는 독립운동 탄압은 물론이고 650만여

명의 조선인을 끌고 가 마소처럼 부려먹었다. 군인, 군무원, 노무자, 위안부 등 강제 징용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됐다. ‘귀향’ ‘군함도’ 같은 영화에서 보듯, 전장으로 끌려간 조선인들은 한반도와 일본, 남사할린, 태평양, 동남아시아, 중국 만주의 탄광, 광산, 군수공장 등에서 죽음의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최근 대법원의 ‘미쓰비시(三菱) 징용피해자 배상판결’을 놓고 일본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이는 바다에 떠 있는 나뭇잎에 불과한 것이다. 위안부를 포함해 조선인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진심 어린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그 엄청난 희생과 고통의 그늘이 여전히 한국 사회 깊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미래의 거울. 일본이 미래 우호적 한일 관계를 원한다면 과거는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정당한 처사다.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인천에선 우리나라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움직임이 포착된다. 그해 3월 6일부터 인천 전역에 들불처럼 번진 인천공립보통학교(현 창영초등학교), 황어장터, 강화도, 용유도 등지의 만세운동도 운동이지만 무엇보다 주목되는 사건은 4월 2일 인천 만국공원(현 자유공원)에서 열린 ‘13도 대표자 회의’다. 만오 홍진 선생이 주도한 13도 대표자 회의는 4월 11일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잉태한 역사적 회합이었다. 인천둘레길(125km)과 강화나들길(310km)을 종주한 시기가 있었다. 그때의 심정은 안타깝고도 고마운 것이었다. 빼앗긴 산하를 걸어야 했던 조상님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지금, 풀나무의 향기를 맡으며 우리 땅을 걷는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 3월의 어느 봄날엔 다시 인천의 산하를 걸어야겠다. 김복동 할머니와 훈 할머니의 명복을 빌며,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치러낸 이 땅의 강제 징용자와 순국선열들을 향해 고개 숙이며….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추억을 걸어드립니다

한쪽 벽에 크게 걸린 가족사진이 그리 부럽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월 흘러 형편은 조금 풀렸을지 몰라도, 온 가족 둘러앉아 얼굴 보는 일은 더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굿모닝인천>이 동네 사진관에서 가족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집 안 행복이 흐르는 자리에, 소중한 추억을 걸어드립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 같던 외동아들이 장성해 조금 이른 독립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에 이어 다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야 하지만, 꿈 많은 시절이기에 부모님은 아들의 미안함을 힘찬 응원으로 격려합니다. <내 고장 인천>을 기억하는 귀한 독자이자, 15년 넘게 <굿모닝인천>을 구독 중인 열혈 독자인 아버지. 60세를 맞은 아버지를 위해 마련한 아들의 작은 이벤트로, 김한주 독자님 가족은 생애 처음 가족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왼쪽부터 아버지 김부영(60) 님, 어머니 양영자(56) 님, 아들 김한주(26) 군

이달의 사진은 ‘**검단사진관**’에서 찍어주셨습니다.

무 받고 사진 찍어주고, 가지 받고 사진 찍어주던 그 시절. 신태원(84) 사진사는 1974년부터 40년 넘도록 한자리에서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월 흘러 찾는 손님 뜸해진 요즘은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기도 하지만, 사진사의 한평생 흔적이 짙게 배어 있는 8평짜리 작은 사진관은 지금도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립니다. 위치 서구 검단로487번길 6

※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싶은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소개와 가족사진을 찍고 싶은 이유를 간단히 적어 보내주세요.

신청 : <굿모닝인천>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incheon.go.kr) 독자마당(성명/연락처/주소 필수)

